

# STREET ARTS & CIRCUS 2021

2021 거리예술·서커스 창작지원 사업

Seoul Street Arts Creation Center | Support for Creative Projects in Street Arts & Circus



# STREET ARTS & CIRCUS 2021

2021 거리예술·서커스 창작지원 사업

Seoul Street Arts Creation Center | Support for Creative Projects in Street Arts & Circus



STREET  
ARTS  
CREATION  
CENTER  
SUPPORT  
FOR  
CREATIVE  
PROJECTS

Chapter 1

- 06 **소개**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거리예술 서커스 창작지원사업

**INTRODUCE**

Seoul Street Arts Creation Center  
Support for Creative Projects in Street Arts and Circus

Chapter 2

- 12 **2021 창작지원 - 리서치**  
**[거리예술]**  
다수의 길 하나의 기억  
초종  
(가제) 자리  
쇼룸\_SHOWROOM  
일상문

**[서커스]**

돌아버리겠네  
도시조류도감  
폴의 변형  
저글링 뉴웨이브

**2021 CREATIVE RESEARCH**

**[Street Arts]**

A Memory for Our Road  
Eternity  
(working title) Position  
SHOWROOM  
Sun Emblem of the City

**[Circus]**

Driving Me Crazy  
Guide to Urban Birds  
Deformation of Pole  
Juggling New Wave

Chapter 3

- 32 **2021 창작지원 - 제작**  
**[거리예술]**  
요람의 기억 : 홀로의 공간  
싱크싱크 프로젝트  
연희괴담  
항해

**[서커스]**

다 함께 막거나 다 같이 죽거나

**2021 PRODUCING**

**[Street Arts]**

Cradle : Space alone  
Sound in sync, sink in street  
SAZA  
Voyage

**[Circus]**

Work together or Die together

Chapter 4

- 44 **2021 창작지원 - 서커스 상주형**  
**사업소개 및 성과**

봉앤줄  
포스

BONGnJOULE  
FORCE

Chapter 5

- 56 **2014-2020 창작지원사업**  
[2020] (주)미아스마트택배 외 24건 프로젝트  
[2019] 꼬이다, 풀리다 외 25건 프로젝트  
[2018] 노숙프로젝트1-꽃길에서 넘어지다 외 12건 프로젝트  
[2017] 망각댄스[세월호 편] 외 8건 프로젝트  
[2016] 고물수레 외 8건 프로젝트  
[2015] 기억하는 사물들 외 9건 프로젝트  
[2014] 꽃을 피우는 무대 <화산대> 외 6건 프로젝트

**2014-2020 CREATIVE PROJECTS**

[2020] SMART DELIVERY CO., LTD. and 24Projects  
[2019] Twist and Unite and 25Projects  
[2018] Homeless Project 1- Falling on Flower  
Road and 12Projects  
[2017] Dance of Remembrance <Sewol Ferry  
Disaster> and 8Projects  
[2016] Grandma's Cart and 8Projects  
[2015] Things that Remember and 9Projects  
[2014] Blossomy Scene <HWASANDAE> and  
6Projects

Appendix.

- 110 **부록**  
공간 안내  
주요 사업 안내

Venues  
Programs

2021  
954  
541  
2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거리예술·서커스 장르의 제작, 연습, 교육, 배급이 이루어지는  
국내 최초의 거리예술·서커스 베이스캠프입니다.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2015년 4월, 40여 년의 산업시설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거리를 위한 작품을 만들고, 거리에서 활약할 예술가를 키워내며, 거리의 문화를 고민하는 거리예술 및 서커스 베이스캠프로 개관하였다.

In April 2015, Seoul Street Arts Creation Center that had contributed as an industrial facility for 40 years transformed into the base camp of street and circus arts to create street arts, cultivate street artists and ponder over street culture.

창작센터는 작품이 연중 지속적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창작환경을 조성하여 국내외 축제 및 도심의 공공공간에서 공연 가능한 공공예술로서의 거리예술 및 서커스 작품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창작지원사업, 거리예술과 서커스 장르의 저변 확대와 예술가 대상 재교육 및 신진 예술가 발굴을 위한 전문가 양성과정을 진행한다.

It carries out creation support projects that discover and support street and circus arts presentable as public arts in festivals and public venues in the country and abroad by building a creative environment where arts can be created all year round and expert cultivation programs that aim to expand the base of street and circus arts, reeducate artists and discover new artists.

이외에도 거리예술과 서커스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일반인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거리예술과 서커스 분야의 창작 및 배급, 전문가 양성과정의 다변화, 실용적인 정보의 공유를 위한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사업을 운영한다.

Also, it runs general art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to enjoy and experience street and circus arts more easily and national/international exchange and network projects to create and distribute street and circus arts, diversify expert cultivation programs and share practical information.

또한 국내 유일하게 거리예술 및 서커스 관련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9년 완공 및 개관한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내 레지던시를 기반으로 거리예술 및 서커스 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을 확대 추진해오고 있다.

In addition, it is the only institution that continues to investigate the materials of street and circus arts with its own archive in the country and attempts to expand the national/international exchange projects in street and circus arts based on the residency built and opened in it in 2019.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거리 곳곳에서 펼쳐질 다양한 작품과 예술가들의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거리낌 없이 예술을 만나게 하는 국내 유일한 거리예술 및 서커스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

It intends to serve as the country's sole testing ground of street and circus arts where people can freely meet arts in their daily lives by supporting artists and performances that will be presented all over the streets.

2021  
954  
541  
2

**창작예산 지원**

거리예술 및 서커스 작품 발굴과 육성을 위한 창작예산 지원

**공간 지원**

예술가들의 원활한 작품활동을 위한 제작 및 연습 공간 지원

**예술가 네트워킹**

창작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국내외 예술가 네트워킹 기회 제공

**홍보·배급 지원**

향후 국내외 극장, 축제 등에 단체 및 작품의 홍보와 배급 지원

**창작 지원**

거리예술·서커스 창작지원사업은  
국내 거리예술, 서커스 작품 발굴과 성장을 통해  
도심의 공공공간, 거리 등 다양한 공간에서 관객과 만나고,  
해당 장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창작지원 사업은 창작센터가 본격적인 가동을 준비하던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거리예술 분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지원 사업이다.

그동안의 거리예술은 국내에서 인식이 넓지 않은 상황이라 예술지원 사업에서 배제되어 제한적으로 지원을 받아왔는데, 창작센터의 창작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도심의 공공공간의 거리, 야외공간 및 다양한 공간에서 공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많은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공공예술로서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

창작지원 사업은 체계적인 지원으로 작품 개발 기회 제공 및 수준 높은 거리예술을 육성하고, 다양한 발표 공간(국내 외 축제 및 도심 공간)에서 공연 가능한 공공예술로서의 거리 예술 작품 발굴, 서커스 공연단체의 개발 등 거리예술의 다양성 확대와 영역 확장을 위한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을 지원하며, 거리예술 분야의 지속적인 활성화 및 대중인식의 확산을 위하여 거리예술 특성에 맞는 창작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거리극, 거리무용, 서커스, 시각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거리예술 창작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품이 연중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작, 홍보, 연습 공간 지원 및 비평 등 전체적인 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지원 사업이다.

Seoul Street Arts Creation Center launched the street art creation support project for the first time in the country while preparing for full operation in 2014.

By then, street arts were rarely known in the country and had limited funding, excluded from art support businesses. The center's creation support project paved the ways for performances in public streets, outdoors and other spaces in cities, opening a new world of public arts accessible by many audiences.

The creation support project provides systematic supports to furnish art creation opportunities, cultivate sophisticated street arts, discover street theaters performable as public arts in various venues (festivals and cities in the country and abroad), develop circus art companies, increase diversity and extend the boundary of street arts with challenging and imaginative works, and is building a creation support system fit for the characteristics of street arts to upsweep and increase the public awareness.

It is a comprehensive support project that encompasses the whole process from creation to promotion to supporting practice rooms to giving criticism while building an environment where arts can be created all year round, not to mention various street art creation such as street play, street dance, circus and visual arts.

# 2021 954 541 2

## 창작예산 지원

거리예술 및 서커스 작품 발굴과 육성을 위한 창작예산 지원

## 리서치 지원

차년도 신작 창작, 제작의 준비 단계에 있는 작품 지원  
단년, 최대 1,500만원 / 다년지원 선정 시, 최대 3,500만원

## 제작 지원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계획된 올해 발표가 가능한 작품 지원  
단년, 최대 3,000만원

## 서커스 상주형 지원

공연이 가능한 2개 이상 레퍼토리를 보유한 단체 지원  
최대 3년, 최대 연 5,000만원

## 연구지원

거리예술, 서커스 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연구물 지원  
단년, 최대 1,500만원

※ 지원분야, 내용, 최대지원금 등은 매년 소폭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2015년 개관 이후 거리예술과 서커스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작품제작을 지원하는 창작지원 사업은 개관 이전인 2014년부터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도되었다.

2016년부터는 기존 거리예술 분야와 통합 운영하였던 창작지원 사업에서 서커스를 분리, 서커스 작품지원으로 특화된 창작지원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2017년까지 매년 거리예술과 서커스 분야의 10개 내외 창작프로젝트를 지원했고, 2018년부터는 다년지원 방식을 채택해 리서치 지원 과정을 신설하여 충분한 창작기간을 제공하고 지원 프로젝트의 수를 늘렸으며 새로운 창작단체들의 진입을 수월하게 확장하였다.

그렇게 현재 창작지원사업은 '리서치 지원', '제작지원', '서커스 상주형 지원', '연구 지원'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올해 리서치 지원은 총 9개 단체(거리예술 5개, 서커스 4개), 제작지원은 총 5개(거리예술 4개, 서커스 1개), 서커스 상주형 지원은 총 2개 단체가 선정되었다.

Since the opening in 2015, Seoul Street Arts Creation Center has been carrying out various street and circus art support projects.

In particular, it launched the art creation support project in 2014 for the first time in the country before the opening.

In 2016, it separated a circus art creation support project from the art creation support project that had been run for both street and circus arts.

By 2017, it supported around 10 street and circus art creation projects each year, and in 2018 adopted a multiyear support program that provides sufficient creation periods by introducing a research curriculum, and increased the number of support projects and lowered the entry barrier for new creation companies.

As a result, the creation support project is currently run in four types: Research support, production support, circus residential support, study support.

This year, 9 companies (5 street art companies, 4 circus art companies) were selected for research support, 5 companies (4 street art companies, 1 circus art company) were selected for production support, and a total of two companies were selected for circus residential support.

구분	2019 선정 건수		2020 선정 건수		2021 선정 건수		
	거리예술	서커스	거리예술	서커스	거리예술	서커스	
창작지원	리서치	5	6	7	2	5	4
	제작	11 (국제공동제작3)	3	5	5	4	1
서커스 상주형 지원			2		2		2
연구지원			-	4			-
단위: 원	465,000,000		475,000,000		300,000,000		

# RESEARCH

# 02

거리예술·서커스 창작지원사업 [리서치]  
Support for creative projects [Research]

## [거리예술]

다수의 길 하나의 기억  
초종  
(가제) 자리  
쇼룸\_SHOWROOM  
일상문

## [서커스]

돌아버리겠네  
도시조류도감  
폴의 변형  
저글링 뉴웨이브

## [Street Arts]

A Memory for Our Road  
Eternity  
(working title) Position  
SHOWROOM  
Sun Emblem of the City

## [Circus]

Driving Me Crazy  
Guide to Urban Birds  
Deformation of Pole  
Juggling New Wave

## 다수의 길 하나의 기억

### A Memory for Our Road

#### 그 곳에서만 가능한 것들

<다수의 길, 하나의 기억>은 거리예술가로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공공장소는 동네라는 생각에서 시작한다. 초청 받아 잠시 일하고 떠나는 손님 예술가가 아니라 예술가가 주민으로 살고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공연을 만들 수 있을까?

잔치의 전통적 의미를 동네 단위에서 재발굴하고, 현대 사회에서 희미한 말 '동네'를 공연 형식으로 탐구해보고자 한다. 동네 특정형 공연을 위한 연구와 형식 실험을 했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공유한다. 2022년 하반기 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다.

#### Things possible only there

<Many Memories, One Way> begins from the thought that our neighborhood is the closest public space to us as a street artist. What is it like to create a play in our neighborhood where we live our daily lives, not a place where we are invited to perform as an artist for a moment?

We intend to rediscover the conventional significance of festival at neighborhood level and explore the term "neighborhood" that is fading away in modern society in the form of play. We conducted a study and experiment on the form of neighborhood-specific play and share the process thus far. We aim to perform in the second-half of 2022.



대표자 성은지 010-9862-8579 danceunji@gmail.com

#### 구열

함께 구열 기쁨 열悅, '구열'은 평범한 예술가들의 그룹이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은 예술이 될 수 있는가 질문한다. 우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주의 깊게 추구했을 때 그것이 예술로 인정되는 사회를 바라며 작업 활동을 한다. 구열은 셀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 중 한 명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 어떻게 동시에 사회적 일이 되는지 탐구한다.

#### Gu Yeol

A group of ordinary artists with the name of 'Gu Yeol', Gu meaning "together" and Yeol meaning "happiness" in Chinese characters. We question if arts can be something that most ordinary people want to do. We create arts, dreaming of a society that recognizes our and most ordinary people's adventent pursuit of our own cravings as arts. We explore how a personal matter of one ordinary person among the numerous could be a social matter at the same time.



Representative Sung Eun-ji +82-(0)10-9862-8579 danceunji@gmail.com



## 초종 Eternity

### 당신과 우리의 상실을 보내고 맞이하는 순간

〈초종〉은 상실들을 떠나 보내는 애도의 여정이다. 시민배우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작업하였고 온라인으로 사연을 접수받아 작품에 담았다. 〈초종〉은 Covid-19 상황에서 마주한 죽음과 상실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형태와 깊이의 상실을 경험한다. 하지만 상실의 고통을 외면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에 압도되어 충분히 애도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표현되지 못해 억눌리고 압축된 슬픔들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현재의 삶마저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을 풀어내기 위한 예술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Moment after your and our loss

Chojong is the journey of condolence to dispel a loss. We worked based on talks with citizen actors and reflected stories of people posted online. Chojong begins from the question of death and loss faced in the Covid-19 pandemic. People experience losses in various forms and depths during the lifetime, but cannot express their condolences sufficiently, suppressed by the social air avoiding the pain from loss. The sorrows restrained and compressed within us do not stay in the past and make the current life miserable. To address the situation, arts were considered needed.

### 볼레볼레

당신과 우주의 행복을 찾아 떠난다!

‘볼레볼레’는 예술의 역할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교감을 도와주는 것에 있다고 믿는다. 음악, 미술, 무용 등 다양한 예술장르를 활용해 인간 사이에 끊어진 소통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향후 계획

연속지원 선정, 2022년 제작 예정

### POLEPOLE

Set off to find your and space's happiness! 'POLEPOLE' believes the role of arts is to rec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help commune with others. We carry out projects to recover the broken communication between humans using various arts such as music, fine art and dance.

### Future Plans

To be produced in 2022

## (가제) 자리

(working title) Position

### 자신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불안

지위는 사회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위치이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만들어 가려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당연한 본능인지도 모른다. 지위는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좋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지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행위는 오히려 인간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한다. 본 프로젝트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에서 지위를 나타내는 인간의 '자리'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에 대한 이야기이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거나 혹은 자리를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쓰는 인간의 모습을 신체극 형태로 이야기 한다.

### Endless anxiety from one's position

Position is the status of a person in a society. It may be the human's natural instinct to endlessly try to maintain and obtain a position within the frame defined by the society. Position decides the amount of public interest that one can get, and ultimately decides if one can value itself or will lose its self-confidence. However, such acts can rather bring anxiety at times. This project talks about the anxiety that occurs from "position" representing the status within the frame of society. It shows how people try to keep or obtain their positions by all means in the form of physical theatre.



대표자 김현기 010-5094-5248 edmundkim91@gmail.com

### 김현기

'김현기'는 '2020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유망예술가 양성과정' '거리예술 넥스트'를 수료했다. 공간을 찾고 그곳의 메시지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즐기며 서커스, 연극, 무용, 전시 등 다양한 장르의 융합을 시도하고 신체 움직임과 오브제를 주로 활용한다.

### Kim Hyun-ki

'Kim Hyun-ki' completed Street Arts Next, which is the 2020 Seoul Street Arts Creation Center's promising artist cultivation program. He likes to discover a space and visualize messages from the space, attempts to combine various arts such as circus, play, dance and exhibit, and utilizes physical movement and objet primarily.

### 향후 계획

연속지원 선정, 2022년 제작 예정

### Future Plans

To be produced in 2022



Representative Kim Hyun-ki +82-(0)10-5094-5248 edmundkim91@gmail.com



## 쇼룸\_SHOWROOM

### SHOWMETHEMASK!

〈쇼룸\_SHOWROOM〉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 가장 적합한 가면을 쓴 인격과, 그가 본인의 가장 내밀한 곳에 숨겨둔 이면을 들여다보고, 이미 피부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각자의 가면에 대해서도 재인식해 보는 작품이다.

### SHOWMETHEMASK!

SHOWROOM looks into the persona of a person wearing a mask that fits best for the society it belongs to and the other look that the person has hidden in the deepest part, and rethink about individual masks that may have become the skin of people.

### 조성아

'조성아'는 장르의 경계 없는 표현 방식에 방향성을 두고 작업하며 다양한 장소를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공간으로 확장해 나가며 창작 작업을 하는 거리예술단체다.

### Cho Sung-ah

'Cho Sung-ah' is a street art company that pursues borderless art expression across the genre and transforms various spaces into spaces with a new potential.

## 일상문

### Sun Emblem of the City

#### 일상문(日象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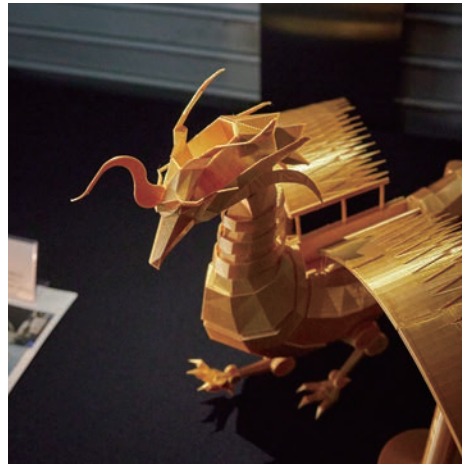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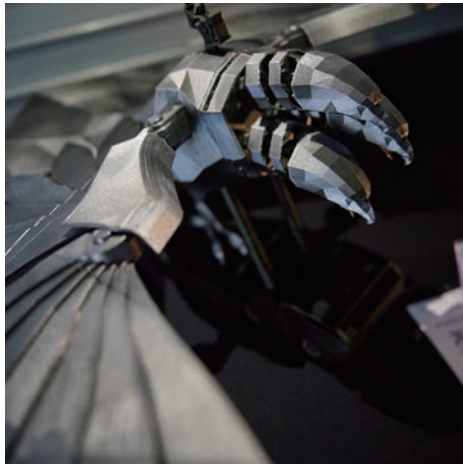
‘태양 속의 삼족오가 2021년 서울 한복판에 떨어지는데...’

태양의 새 삼족오(三足鳥)와 삼두일족응(三頭一足鷹)의 이야기를 통해 국난 극복의 의지를 표현하고, 밝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일상문(日象文)>은 태양을 상징하고 이를 형상화한 문양을 뜻하며, 대규모 퍼레이드 공연에 사용하게 될 삼두매(삼두일족응) 오브제의 미니어처를 제작하여 전시하려 한다.

#### Sun Emblem of the City

‘A three-legged crow falls from the sun in the center of Seoul 2021...’

Through the story of the sun's birds, three-legged crow and three-headed-one-legged hawk, we attempt to express the will of recovery from the national disaster and deliver the hopeful message for a bright world. Ilasangmoon is a pattern shaped after the sun to symbolize it, and we will fabricate and display a miniature of the three-headed-one-legged hawk that will be used for a large-scale pa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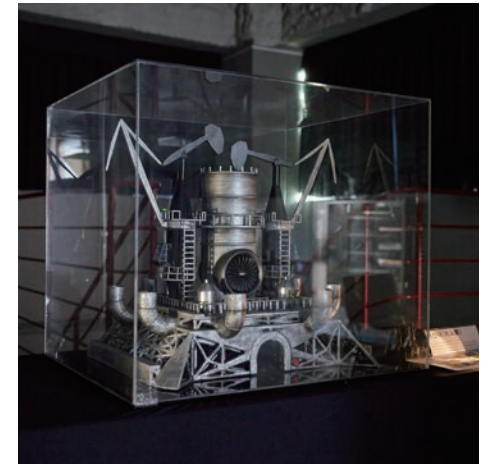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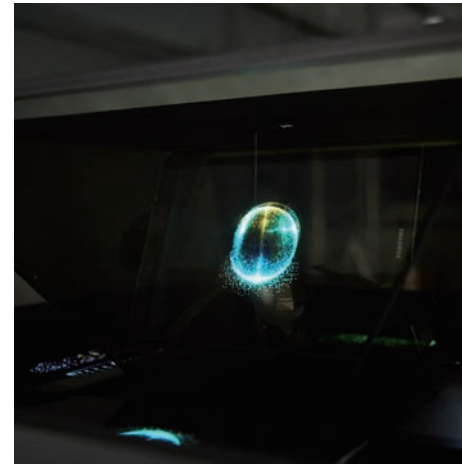
대표자    광창석    010-9991-9431    pyrokwak@gmail.com

#### 예술불꽃화랑

‘예술불꽃화랑’은 불과 불꽃을 이용해 공연하는 불꽃극 단체다. 불과 불꽃이 가지는 무수한 상징성을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다양하게 창작하고자 한다. 새로운 형식의 공연을 통해 불꽃이 하나의 공연예술 장르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HWARANG Art Pyrotechnics

‘HWARANG Art Pyrotechnics’ is a firework art company that performs with fire and flame. We intend to create various arts with the numerous symbolic significances of fire and flame. We are trying to have flame be recognized of its value as a genre of public arts through different types of performances.



Representative    Kwak Chang-seok    +82-(0)10-9991-9431    pyrokwak@gmail.com



## 돌아버리겠네

### Driving Me Crazy

세상이 도는 것인지, 내가 돌아버린 것인지...

〈돌아버리겠네〉는 상황 속에서 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돌아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그 돌아버리겠는 상황을 직시하고 그 안으로 몸을 던져보기로 했다.” 다양한 서커스 휠과 새로운 운동성을 만들어주는 세트를 사용하여 기예와 신체움직임, 그리고 이미지를 사용하여 돌아버리겠는 현실과 그 마음을 비추어낸다.

Is it the world or me going crazy?

Driving Me Crazy questions how we can stay sane in crazy situations. “I decided to face and throw myself into crazy situations”. It reflects the crazy situations of reality and our minds therein using artistic physical movements, skills and images created by various circus wheels and sets making different movements.

대표자

권해원

010-2620-5170

hae1q91@naver.com

## 코드세시

‘코드세시’는 서커스 기예를 재료로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이야기를 이미지로 풀어내고 있다. 현재는 서커스 휠을 주 기예로 작품 창작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다원예술로서의 발전을 도모하며 성장하고 있는 단체이다.

## 향후 계획

연속지원 선정, 2022년 제작 예정

## Code Sassy

‘Code Sassy’ tells the stories of our present time, not the past or future, through images using artistic circus skills. Currently, we are creating arts using mostly circus wheels and growing,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interdisciplinary arts.

## Future Plans

To be produced in 2022

Representative

Kwon Hae-won

+82-(0)10-2620-5170

hae1q91@naver.com

## 도시조류도감 Guide to Urban Birds

### 갈 곳 잃은 인간조류들의 잔혹 비행 서커스

〈도시조류도감〉은 도시의 사는 새들을 주제로 인간과 조류 두 개체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서식지 문제와 실존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매우 진지하고 심오한 서커스극이다. 리서치 과정에 있는 도시조류도감은 구조물 제작, 의상 및 소품 제작, 음악 구성, 장면 리서치, 움직임 리서치, 트라페즈 및 후프 리서치 등을 다양한 분야에의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 Cruel flying circus of lost human birds

Encyclopedia of Urban Birds is a heavy and solemn circus play that talks about the crisis in the habitat and existence of both humans and birds under the theme of urban birds. It is currently in the research process for researches in various fields such as structure production, costume and prop production, music composition, scene, movement, trapeze and ho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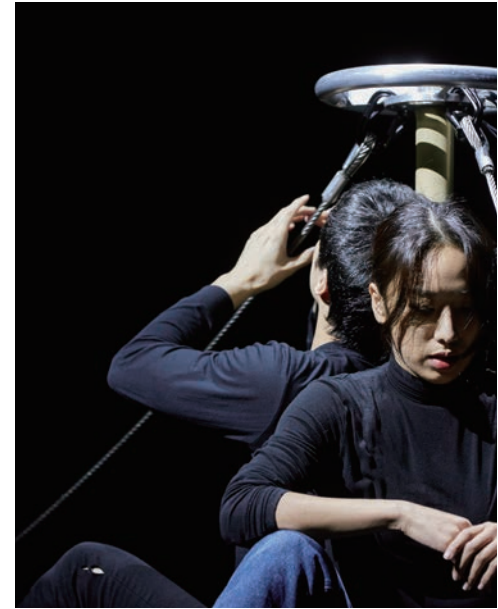
### 컨컨

‘컨컨’은 Contact와 Connection의 첫음절을 딴 이름으로 둘 이상의 개체나 사상, 장르 등의 접합지점과 연결지점을 다양한 장르의 예술로 찾아내고 연구하는 예술단체다.

### ContConn

‘ContConn’, abbreviation of “contact” and “connection” is an artistic group that identifies and studies the connection and contact point between two or





## 폴의 변형

### Deformation of Pole

폴의 변형을 통해 움직임 확장의 가능성을 찾아본다.

폴을 사용해 퍼포머가 위아래로 오르내리기 위해선 바닥의 한 지점에 위치를 잡아 수직으로 고정해야 한다. 지난 8년간 폴을 타며 관객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서커스를 고민해왔다. 만약 수직으로 고정됐던 폴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면 우리는 관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던 지난 시간과 실험의 과정을 공유하고 더 많은 가능성을 탐구하려 한다.

Find the expandability of movement through deformation of pole.

A pole has to be fixed vertically to the floor at one point for a performer to climb it up and down. We have grappled over creating a circus closer to audience for the past 8 years of pole performance. Could we go closer to our audience if we free the pole from the floor rather than fixing it vertically? We attempt to share our time and process of experiment we went through thus far to answer the question ourselves, and explore more possibilities.

#### 소울

서커스 창작그룹 '소울'은 서커스 장르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기술에 집중하고 동시에 구현하는 신체를 무용 움직임으로 발전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단순한 기술의 나열을 넘어 서커스에서 이루어지는 동작의 기술의 합이 마치 춤추는 몸으로 보이길 바라며 서커스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움직임 창작을 시도한다.

#### SOUL

Circus creation group 'SOUL' is conducting an experiment to develop circus movements into dances while focusing on artistic skills that make circus arts. We attempt to create new movements from various perspectives, wishing the combination of circus movements look like a dance, rather than a simple display of skills.

#### 향후 계획

연속지원 선정, 2022년 제작 예정

#### Future Plans

To be produced in 2022

## 저글링 뉴웨이브

### Juggling New Wave

#### 시대를 뒤흔들 저글링 장면을 찾아서

<컨베이어 벨트> 함서울

컨베이어 벨트의 일정한 방향성과 움직임을 이용한 새로운

저글링 이미지 발표

#방향 #속도

<상자의 고찰> 김영주

상자의 본질에 대한 리서치 작업과정 발표

#면 #마찰

<도형> 이석원

2차원적인 면을 이용하던 롤러볼러 서커스 기예를 3차원

의 도형으로 리서치한 작업 과정 발표

#불균형 #중심

<일곱 줄> 이준상

다수의 긴 줄과 디아블로(중국요요)를 이용한 새로운 저

글링 장면 발표

#탄성 #회전



#### Looking for the new juggling wave of the time

<Conveyor Belt> Ham Seo-yul

Presentation of new juggling image using the constant di-  
rection and movement of conveyor belt

#Direction #Speed

<Contemplation of box> Kim Yeong-joo

Presentation of research process on the substance of box

#Side #Friction

<Figure> Lee Seok-won

Presentation of research process on transforming the roll-  
er bowler circus using the two-dimensional sides into a

three-dimensional figure

#Imbalance #Center

<Seven strings> Lee Jun-sang

Presentation of new juggling scene using Diavolo (Chinese  
Yoyo) and many long strings

#Elasticity #Rotation

#### 서커스디랩

'서커스디랩'은 서커스 드라마 연구소의 약자로 서커스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연구하는 단체다. 현대의 서커스  
가 가지는 실험적인 특성을 중시하고, 기존 틀에서 벗어난  
창작 작업에 힘쓰고 있다. 가장 가까운 자신의 몸부터 저글  
링 도구, 무대 세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오브제에 대한 탐  
구와 실험을 통해 새로운 그림을 만들고 그 속에서 현대  
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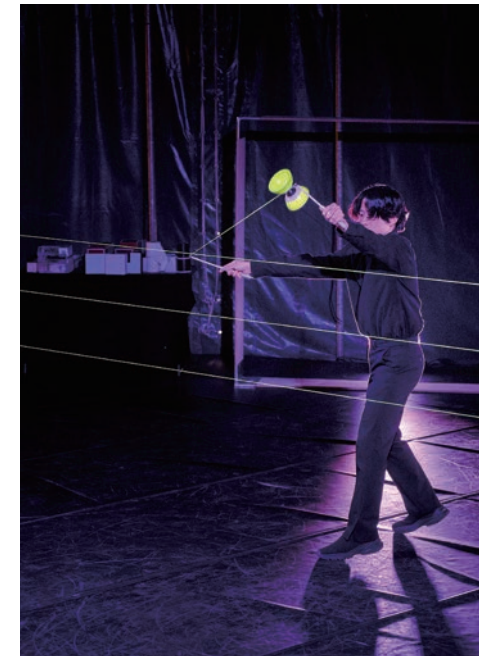
연속지원 선정, 2022년 제작 예정

#### Circus D Lab

'Circus D Lab', abbreviation of Circus Drama Lab, studies  
circus-based dramas. We value the experimental charac-  
teristics of the circus in the present time and try to create  
different arts beyond the existing frames. We create various  
images through exploration and experiment of various ob-  
jects from the closest, our body to juggling tools and stage  
sets and infuse messages that people in the present time  
can relate to.

#### Future Plans

To be produced in 2022



# PRODUCING

# 03

거리예술·서커스 창작지원사업 [제작]  
Support for creative projects [Producing]

## 거리예술

요람의 기억 : 홀로의 공간  
싱크싱크 프로젝트  
연희괴담  
항해

## [서커스]

다 함께 막거나 다 같이 죽거나

## [Street Arts]

Cradle : Space alone  
Sound in sync, sink in street  
SAZA  
Voyage

## [Circus]

Work together or Die together

## 요람의 기억 : 홀로의 공간

### Cradle : Space alone

고립의 시대 속 '고독과 해방'에 대하여 아이모멘트가 건네는 새로운 만남과 제안

거리(Distance)와 사물(Object)에 대한 탐구로 출발하여 창작자들과 관객들이 경험한 고립과 고독에 대한 자전적 이야기로 이어지는 작품이다. 관객과 배우는 흔들의자와 요람이 가지는 속성을 체험하며, 고독과 고립의 균형을 찾고, 각자가 지닌 내면의 리듬을 발견하는 시간을 통해 홀로 있음의 여유와 타인을 새롭게 감각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너와 나의 고독이 만나 공감으로 이어지고 타인에게 투영된 자신을 발견하며 관객은 위로를 얻게 된다. 긍정적 고독의 터널을 통해서 시민들이 다시금 예술과 사회로의 복귀를 독려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고립을 경험한 모두이다. 하지만 이제 간혀있던 고립이 아닌 자유로운 사색의 공간, 홀로의 공간으로 새로이 여행을 떠나고자 한다. <요람의 기억: 홀로의 공간>은 고독과 사회와의 균형을 독려하고, 어딘가로 유보된 지금 속에서 각자가 자신의 시간 속 주인이 되길 희망한다.

러닝타임	35분
무대크기	10m x 10m x 5m
출연진	배우 3명, 스태프 6명
Text	대사 없음

New meeting and proposal by I Moment on "isolation and liberation" in the time of isolation

Starting from the exploration of "distance" and "object", it lays out the autobiographic stories of creators and audiences about their experiences of isolation and solitude. Audiences and actors find the balance between solitude and isolation by exploring the properties of rocking chair and cradle and experience the leisure of being alone and sensing others in a different way through time to discover their inner rhythm. Audiences are consoled while discovering and relating to others' solitude and seeing themselves from others. Citizens will be encouraged to return to arts and society through the tunnel of positive solitude. We have all experienced isolation already. But now, we attempt to set off a new journey to the space of free contemplation, space of being alone, not the space of isolation. Memory of Cradle: Space of Being Alone encourages the balance between solitude and society and hopes everyone be the owner of their own time in the time of suspension that we are currently living in.

Running time	35 min.
Stage size	10m x 10m x 5m
Cast	3 actors, 6 staffs
Text	No line



대표자 노제현 010-7758-6609 imoment@naver.com

### 아이모멘트

'아이모멘트'는 신체극, 현대무용, 전통연희의 배경을 가진 예술가가 모여 출발한 단체다. 나와 우리의 순간들을 시작으로, 작품을 통해 지금의 이야기들을 다룬다. 다양한 장르의 접근을 시도하며 일상 속 기억들과 동시대의 이슈들이 오브제와 몸짓을 통해 다시금 환기되는 것을 지향한다.

### I Moment

'I Moment' began by artists in the physical theatre, modern dance and traditional arts. We talk about stories of present time through arts starting from the stores of us. We make approaches to various genres and intend to freshen up the memories of daily lives and issues of present time through objects and physical movements.



Representative Nho Jae-hyun +82-(0)10-7758-6609 imoment@naver.com



## 싱크싱크 프로젝트

Sound in sync, sink in street

첫 번째 싱크는 서로 딱 맞는 것.  
두 번째 싱크는 서로에게 녹아드는 것.  
싱크를 처음부터 끝까지 맞추는 없어요.  
맞아지는 그 지점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시간과 간격을 제시하는 것이 '거리의 소리'라면 어떤 형태의 싱크가 가능할까? 이것은 어떤 움직임과 연결될 수 있을까?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간격을 음악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 정해진 지점-타이밍-싱크를 동시에 맞추는 것이 가능할까? 다양한 퍼포머들이 그 사이의 거리를 주관적으로 표현할 때 그것을 모아서 한 번에 볼 수 있다면 이것은 어떤 서사를 가지게 될까? 거리와 소리, 움직임이 맞춰지는 장치를 만들 수 있을까? 음악이 '시간'의 예술이라는 것에 주목하면서 타이밍 안에서 정확히 만나는 움직임과 싱크의 포인트를 찾아내고 그것을 다시 재현하여 새롭게 발견한 싱크들을 구현한다.

First sync is to fit together.  
Second sync is to dissolve into each other.  
It is not possible to sync from the start to the end.  
It is just to find the points where things get in sync.

If the "sound of street" is to suggest time and interval, what kind of sync can be made? Could it be connected to a movement? Could the intervals of sound from streets be calculated musically? Would it be possible to make a fixed point and timing in sync? What would it narrate when various performers express the intervals subjectively all at once? Could a device that puts intervals, sound and movement in sync be made? Focusing on music being the arts of "time", we find the exact sync points of movements within timing and reproduce it to discover and show new sync.



### 삼세판(3SP)

소리의 싱크를 찾고 찾은 싱크로 거리에 녹아드는 '삼세판 3SP'은 움직임과 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음악이 되는 그런 장면들의 연결들을 리서치하고 수집하고 있다. 싱크를 처음부터 끝까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맞아지는 지점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리로 음악으로 움직임으로 다시 재현하면서 나타나는 과정을 통해 직관적이면서도 해석의 여지를 열어두는 예술하기를 추구하고 있다.

### 3SP

'3SP' searches sync of sound and dissolves into streets using the searched sync. We research and collect the connections of scenes where movement, speech and all other things turn back into music. We pursue finding the points where things get in sync, rather than putting things in sync from the start to the end, and reproduce the points into sound, music and movements intuitively, leaving a room for interpretation during the process.

러닝타임	40분
무대크기	8m x 7m x 4m
출연진	퍼포머 6명, 스태프 5명
Text	대사 없음

Running time	40 min.
Stage size	8m x 7m x 4m
Cast	6 performers, 5 staffs
Text	No line

## 연희괴담

### SAZA

전국팔도 숨어있는 요괴들을 퇴치하기 위해 전통연희로  
무장한 저승사자들의 요괴 퇴마기

오래된 문헌과 두루마리 그림에서 존재하던 옛이야기, 괴담 속 한국 전통 요괴의 이야기를 조사하고 이를 벽사의식 속 지신밟기와 함께 녹여내어 현대의 거리극에 맞게 재창작하고자 한다. 과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행해지던 지신밟기를 서울 도심 속 거리를 거닐며 행해봄으로써 우리 현대인의 하루와 마음에 안녕을 빌어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입정동 내에서 이동하며 진행하는 오프라인 거리극으로 기획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대면공연이 어려워 비대면 공연으로 변경하고, 유튜브 플랫폼 기능을 사용하였다. 유튜브 매 씬마다 영상 마지막에 다음 재생할 영상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여, 관객이 다음 동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필름 방식을 선보인다.

러닝타임	50분
무대크기	이동형 - 스포츠장 최소 8m x 8m
출연진	배우 6명, 스태프 5명
Text	있음

Exorcism of death angels under the disguise of  
traditional play all around the country

We attempt to investigate the stories of Korea's folk goblins appearing in the myths and ghost stories in ancient literature and rolled pictures and dissolve them into Jisinbapgi of exorcism rituals to recreate them into street plays of the present time. We anticipate to wish all the best for the days and minds of modern men by doing Jisinbapgi across Seoul that used to be carried out with wishes for peace of villages in ancient times.

We originally designed a street play that starts walking from Ipjeong-dong, but due to the pandemic, changed it to a contactless play using a Youtube platform. It is displayed in an interactive film where audiences can select the next video to watch at the end of every scene of the Youtube videos for their next walk path.

Running time	50 min.
Stage size	Moving/Flexible (but minimum 8mx8m)
Cast	6 actors, 5 staffs
Text	KOREAN



대표자 소경진 010-8479-1258

76082506@naver.com

### 놀플러스

'놀플러스'는 창작그룹 노니의 연희유닛으로 출발해 현재는 독립적인 단체로 사람과 자연을 중심으로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고 있는 연희단체이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연희자로서의 전통의 지평을 올바르게 넓혀가고자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실험적인 작업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 NOLPLUS+

'NOLPLUS+', formerly a play unit in creation group Noni, is an independent play company that pursues new "meeting" focused on human and nature. We make endless challenges in experimental works in collaboration with various artists to widen the ground of traditional plays in a right way as an actor of the present time.



Representative So kyoung-jin +82-(0)10-8479-1258

76082506@naver.com

## 항해 Voyage

태양을 눈부시게 바라보는 것,  
손가락 사이로 바람을 느껴보는 것,  
오래된 친구를 만나보는 것,

〈항해〉는 움직이는 침대를 타고 꿈속인 듯, 현실인 듯한 공간에서 항해를 하고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이다. 스스로 움직이는 침대가 주는 비현실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한 남자(광대)는 세상에게, 사람에게 몸짓으로 말을 걸기 시작한다.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는 병상, 침대 위에서 가족을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를 힘겹게 이겨내고 있는 수 많은 사람들을 보며 삶이란 무엇일까 더 생각해본다.

〈항해〉는 저마다의 삶을 표류하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사람은 내가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의 누군가 될 수도 있다. 움직이는 침대와 배우가 만들어 내는 비현실적인 하모니는 새로운 창작방식에 대한 보고서와 같은 작품이 될 것이다.



대표자 이성형 010-9186-0045 juggling114@naver.com

Looking at a dazzling sun,  
feeling wind through fingers,  
meeting with old friends

Voyage is a story of one man sailing on a moving bed in a space feeling like a dream and reality. The man (clown) begins to speak to the world and human with his movement in the unrealistic scenery of self-moving bed. Looking at the numerous people surviving and dying from the Covid-19 on their beds and hospital beds on news every day, we think about life more deeply.

Voyage is a story of one man drifting along the life. The man could be me, my family or someone in the neighborhood. The unrealistic harmony of moving bed and performer will make it a report of new creation method.

## 마린보이

‘마린보이’는 광대극 기반으로 한 서커스 공연으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섬에서 자란 섬 소년이어서 마린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창작자로서 첨단기술과 생태, 자연, 인간에 관심이 많으며, 거리의 풍경 속에서 보고 느끼는 것들이 작업으로 연결되는 편이다. 최근에는 서커스뿐 아니라 메이커로서 직접 제작한 장치들을 활용한 창작 역시 활발하게 진행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질문을 던지고 있다.

## Marine Boy

‘Marine Boy’ began performances in 2003 with a clown show-based circus performance. He named it Marine Boy as he grew on an island. As a creator, he has much interest in high tech, ecology, nature and human and develops performances mainly from his feeling on the scenery of streets. Recently, he is doing creations briskly using self-made devices as a maker, not to mention circus, and asking questions to the world in various ways.



러닝타임	35분
무대크기	10m x 10m
출연진	배우 1명, 페펫티어 1명, 스태프 8명
Text	대사 없음

Running time	35 min.
Stage size	10m x 10m
Cast	1 actor, 1 puppeteer, 8 staffs
Text	No line

Representative Lee Sung-hyung +82-(0)10-9186-0045 juggling114@naver.com

## 다 함께 막거나 다 같이 죽거나

Work together or Die together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다 함께 막거나 다 같이 죽거나.’

고난과 역경은 서로, 함께, 같이 여야만 비로소 이겨낼 수 있다. 우리도 그것쯤은 알고 있다.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우리가 매일 접하고 익히 알고 있으며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단어들일지도 모르겠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저 아홉시 뉴스나 다큐멘터리에서 다루는 소재로 치부하고, 분리수거나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정도로 각 개인들은 실천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생각보다 직접적이고 위협적이며 실질적인 문제로 우리 삶에 이미 침투하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으나 인간의 미온적 대응으로 지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다 함께 막지 않으면 다 같이 멸종’ 할 수밖에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당장 함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We are at a crossroad now.

Work together or Die together.

Hardship and adversity can be overcome only when we get together. We know that for sure.

Environmental pollution, global warming, climate crisis. Those are the terms mentioned every day, well-known and even too familiar now. We know that for sure, but discount them as a topic of nightly news or documentary film. Maybe we are doing some practices such as waste sorting or plastic reduction. However, climate crisis is more direct and threatening than we think and invading our life with practical issues. It is happening now, but humans are underreacting, shortening the survival of earth drastically. We need to let people know that we are stepping into the path of extinction if we don't stop now, that we have not much time left, and that we need to act now.



대표자

정성택

010-3176-5763

thechorokso@gmail.com

### 초록소

‘초록소’는 예술가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예술로 동시대를 재할하는 것에 목적을 가진 실험예술연구 단체이다. 다양한 장르의 청년들과 협업하여 동시대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와 사회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주제 의식을 예술로 관계를 맺어 거리에 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융복합적인 작업을 선보이며 예술영역을 확장해나가는 것을 지향한다.

### The Chorokso

‘The Chorokso’ is an experimental art research group that has much interest in social responsibilities of artists and aims to restore the present time with arts. We put arts on the streets under the themes of various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s of the present time in cooperation with youth in various fields. We present a convergence of works and pursue expanding the boundary of arts beyond genres.

러닝타임	40분
무대크기	10m x 10m x 5m
출연진	퍼포머 5명, 스태프 2명
Text	대사 없음

Running time	40 min.
Stage size	10m x 10m x 5m
Cast	5 performers, 2 staffs
Text	No line



Representative

Jeong Sung-taek

+82-(0)10-3176-5763

thechorokso@gmail.com

# CIRCUS RESIDENCY

04

거리예술·서커스 창작지원사업 [서커스상주형]  
Support for creative projects [CIRCUS RESIDENCY]

사업소개 및 성과

봉앤줄  
포스

BONGnJOULE  
FORCE

## 사업 소개 및 성과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센터의 공간과 서커스 예술단체 간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환경에서 신작을 개발하고, 센터 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공프로그램을 수행하여 국내를 대표하는 서커스 예술단체를 집중 육성하고자 2019년 부터 '서커스 상주형 지원'분야를 신설하였다. 서커스 장르(움직임, 기예 등)를 기반으로 극장, 텐트, 실내 외 공공공간, 거리 등에서 공연이 가능한 서커스 레퍼토리를 2 편 이상 가지고 있는 국내 예술가(단체)라면 지원이 가능하며, 선정된 단체는 최대 3년까지 다년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선정단체는 지원 기간 내 신작을 2편 이상 창작, 발표해야 하며 전문가 혹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프로그램과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기예 및 창작워크숍 등)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센터는 선정된 단체에게 센터 내 연습공간을 우선 배정하고, 시설 및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신작의 홍보와 배급을 적극 지원한다. (서울거리예술축제, 서커스 카바레 등 재단이 주관하는 축제에서 공연 기회 부여) 또한 센터가 주관하는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우선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신작 창작과 관련한 전문가 그룹의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

The Seoul Street Arts Creation Center has established a "CIRCUS RESIDENCY" field since 2019 to develop new works in a stable creative environment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center space and circus art artists, and to intensively foster circus artists representing Korea by conducting various public programs based on the center space. Based on circus genres, domestic artists with more than two circus repertoires that can be performed in theaters, tents, indoor and outdoor public spaces, and streets can apply for multi-year support for up to three years. In addition, the selected artists must create and present at least two new works within the application period, and must carry out programs (technology and creative workshops, etc.)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public programs and artists targeting experts or citizens. The center first allocates practice spaces in the center to selected artists and supports active utilization of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It also actively supports the promotion and distribution of new works. Performance opportunities are given at festivals organized by foundations such as the Seoul Street Arts Festival and Circus Cabaret), which can also first support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organized by the center, and provide consulting of a group of experts on creating new works if necessary.

2019년에 '봉앤줄', '포스' 2개 단체가 선정되어 3년 간 활동하였으며, 2022년에 신규 단체 선발 예정이다.

Two groups, "BONGnJOULE" and "FORCE" were selected in 2019 and have been active for three years, and new artists are scheduled to be selected in 2022.

### 봉앤줄(BONGnJOULE)

2019	1) 신작 리서치: <클레멘타인>(하이와이어) + <스려지다>(차이니스폴) 2) 공공프로그램(전문가 대상): 차이니스폴 워크숍 3) 역량강화 프로그램: <차이니스폴 워크숍> 공개발표
2020	1) 신작 발표: <잇츠굿> 2) 공공프로그램(시민 대상): <모두를 위한 타이트와이어> 3) 역량강화 프로그램: AR을 활용한 서커스 기구 탐구(<스려지다>) 4) 신작 리서치+역량강화 워크숍: 한-불 타이트와이어 협업 리서치 *코로나19 상황으로 진행을 취소하였음
2021	1) 신작 발표: <스려지다> 2) 공공프로그램(무용수 대상): <타이트와이어와 함께 춤을> 3) 역량강화 프로그램: 발넝쿨 안무가와 함께 하는 움직임 워크숍(<힘앤줄>) 4) 신작 리서치: <오디션>(줄타기)

### 포스(FORCE)

2019	1) 신작 발표: <아슬> 2) 역량강화 프로그램: <서커스 레벨업>(캐나다 몬트리올 MICC 연수 및 워크숍)
2020	1) 신작 리서치: <비춤>의 4개 에피소드(깊이/추/물낫/술사) 관련 리서치 2) 공공프로그램: <미美: 완성> 워크숍 (아크로바틱, 씨어컬, 에어리얼 루프, 차이니스폴)
2021	1) 신작 발표: <빛춤> 2) 역량강화 프로그램: <자전> (X-Y-Z 차이니스폴 기구 리서치) 3) 공공프로그램: <널뛰자> 워크숍 (티터보드)

## 스러지다

2021년 제작 발표

### Vanish

[스러지다] :  
형태나 현상 따위가 차차 희미해지면서 없어지다.

‘스러지다’는 서커스 기예인 차이니스폴과 텍스트, 오브제 그리고 사운드아트가 결합한 컨템포러리 서커스이다. 2019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상주형 지원사업 중 ‘리서치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봉앤줄의 초기작 ‘외봉인생’이 붕을 세우는 과정을 드러낸 작품이라면 ‘스러지다’는 붕이 쓰러지는 과정을 담았다. 지난 2년간 사운드, AR, 목소리, 텍스트와 함께 2년간의 내부 발표와 리서치를 거치며 제작되었다. 붕이 단순하게 쓰러지는 과정에서 텍스트와 오브제(짐볼) 그리고 사운드가 결합하면서 점점 희미해지면서 없어진다는 뜻의 ‘스러지다’라는 의미로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지켜보는 것이 관람 포인트이다.

러닝타임	45분
무대크기	12m x 12m x 9m
출연진	배우 3명, 스태프 5명
Text	대사 없음

[Vanish] :  
A form or phenomenon gradually fades away.

Vanish is a contemporary circus where the circus skills, Chinese pole and text, object and sound art are combined. It began as a research project among the residential support projects of Seoul Street Arts Creation Center in 2019. While Bong & Joule's initial work, Life of Single Pole shows the process of setting up a pole, Vanish shows the process of the pole falling down. It was produced through inner presentations and researches on sound, AR, voice and text for the past 2 years. The viewing point is to watch how the simple fall of the pole goes to "vanish" meaning fading away by text, object (gym ball) and sound combined.

Running time	45 min.
Stage size	12m x 12m x 9m
Cast	3 actors, 5 staffs
Text	No line



대표자 안재현 010-9193-6259 bongnjoule@gmail.com

### 봉앤줄

‘봉앤줄’은 화려해 보이는 서커스 기예 이면에 인간의 나약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서커스 기예와 다른 장르의 결합을 통한 동시대 서커스 창작을 목표로 한다. 특히 서커스 기예의 상징적인 존재감을 통해 무대 위 ‘헤테로토피아’를 구현하고 그 안에서 바라보는 일상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나갈 것이다.

### BONGnJOULE

BONGnJOULE aims to create a circus of the present time by combining circus skills with other genres focusing on the weakness of human behind the splendor of circus. In particular, we present Kader Abdolah on the stage through the symbolic presence of circus skills to observe how daily lives can be seen differently.



Representative Ahn Jae-hyun +82-(0)10-9193-6259 bongnjoule@gmail.com

## 기타 수행 프로그램

신작 리서치 : <오디션>

공공프로그램 : <타이트와이어와 함께 춤을>

역량강화 프로그램 : 발넝쿨 안무가와 함께 하는 움직임 워크숍 <힘앤줄>



<오디션>



<힘앤줄>



<타이트와이어와 함께 춤을>



<타이트와이어와 함께 춤을>

대표자    안재현    010-9193-6259    bongnjoule@gmail.com



Representative    Ahn Jae-hyeon    +82-(0)10-9193-6259    bongnjoule@gmail.com

## 빛춤

2021년 제작 발표

### Be-choom (Reflection)

#### 깊이/추/물빛

치열함과 불안정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한 인간의 마음속 안. 그 안에 살고 있는 여러 자아(ego)들 중 한 자아(ego)가 고군분투를 한다.

〈빛춤〉은 옴니버스 공연 전체를 이끌어갈 관객 참여형 '이머시브 시어터(immersive theater)' 공연이다. 공연 전 관객에게 '빛:(헤드라이트)'을 배부하여 시작부터 끝까지 관객 참여형으로 이루어진다. 관객은 모험을 이끌어가는 출연자 및 진행 요원을 따라 함께 이동하며, 관객이 공통적으로 보는 지점에 빛을 모아 자연스럽게 조명으로 공간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하나씩 비추어지기 시작한다. 각 에피소드에 담긴 공통된 컨셉은 '성찰'이다. '당신이 비추는 순간, 당신은 내가 된다'; 도망가고 싶은 현실에서 뛰쳐나와 자신과의 시간을 갖고 나와 마주하는 이야기. 관객은 출연자에게 이입되어 각기 다른 형태의 공연과 장면에 담긴 메시지를 다양한 해석으로 자신만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뚜렷한 메시지 전달 방식이 아닌 원초적인 감정과 상태의 밀도만으로 표현하여 주관적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상상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이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로가 자신이 되어 서로를 되돌아보고, 서커스 또한 '재조명'하는 은유적 컨셉이 공존한다.

#### Depth/Weight/Water surface

Inside the mind of human living in a fierce and unstable reality.  
Among the many egos in it, one ego struggles.

Light Dance is an audience participatory immersive theater that will lead the entire omnibus theater. A light (headlight) is given to audiences beforehand for full participation from the start to the end. Audiences are accompanied by performers and guide staff leading the adventure. When lights are naturally gathered to one space along the sight line of audiences, the story of the space unravels one by one. The common concept of the stories is "reflection". "When you shine me, you become me"; A story of escaping from the miserable reality and facing and having time with myself. Audiences will develop empathy with the performers and find their own meanings from the messages in performances and scenes in different forms individually. The purpose is to express the messages with primitive emotions and conditions of depth, rather than expressing in a clear method so that audiences can imagine and interpret subjectively and develop empathy in their own way. A metaphoric concept coexists that audiences look back one another by becoming others and also "sheds new light" on circus.

러닝타임	50분
무대크기	1) 8m x 8m x 8m 2) 6m x 12m x 7m 3) 7m x 6m x 10m
출연진	배우 5명, 스태프 3명
Text	대사 없음

Running time	50 min.
Stage size	1) 8m x 8m x 8m 2) 6m x 12m x 7m 3) 7m x 6m x 10m
Cast	5 actors, 3 staffs
Text	No line

대표자 이영호 010-3026-5205 master@force-artech.com

#### 포스

'포스'는 융합과 연결을 모태로 예술 고유의 가치와 현대의 무한한 가능성이 효과적으로 조화된 공연 형태를 선보여 예술에 대한 시선과 접근 방식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설립한 융합·뉴 폼 아트 창작 그룹이다.

#### FORCE

'FORCE' is a new form art creation group founded in 2016 aiming to lead changes in the look at and approaches to arts by presenting performances effectively harmonizing the original value of arts with endless potential of modern times based on fusion and connection.



Representative Lee Young-ho +82-(0)10-3026-5205 master@force-artech.com

## 기타 수행 프로그램

공공프로그램 : <널뛰자> 워크숍

역량강화 프로그램 : X-Y-Z 차이나이즈플 기구 리서치



대표자 이영호 010-3026-5205 master@force-artech.com

X-Y-Z 차이나이즈플 기구 리서치



Representative Lee Young-ho +82-(0)10-3026-5205 master@force-artech.com

2014-2020  
CREATIVE  
PROJECTS

05

거리예술·서커스 창작지원사업 [2014-2020 창작지원사업]  
Support for creative projects [2014-2020 CREATIVE PROJECTS]

2020 창작지원 / Research [Street Arts]

## 요람의 기억: 홀로의 공간

Space in Alone

<요람의 기억: 홀로의 공간>은 거리예술에서 다뤄야 하는 거리와 오브제에 대한 리서치 과정이다. 작품은 고립과 고독에 대한 배우들의 자전적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고립의 시대 속 관객과 무대의 단절이 아닌 내면의 고독을 들여다보는 여정으로 전환되며,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현재의 순간을 각자의 내면의 리듬을 통해 재해석하는 시간이 된다.

"Memories of the Cradle: Space Alone" is a research process on streets and objects that should be covered in street art. The work begins with the autobiographical stories of actors about isolation and solitude. In the era of isolation, it turns into a journey to look into inner solitude, not the disconnection between the audience and the stage, and it becomes a time to reinterpret the current moment blocked by an invisible wall through each individual's inner rhythm. The purpose of <Homeless Project> is to study and research various significant signs of homelessness and materializing them as performance aesthetics.



'아이모먼트'는 여러 배경을 지닌 예술가가 모여 출발한 거리 예술 단체이다. 다양한 장르의 접근을 시도하며 일상 속 기억들과 동시대의 이슈들이 오브제와 몸짓을 통해 다시금 환기되는 것을 지향한다.

'1 Moment' is a street art group started by artists from various backgrounds. We try to approach various genres and aim to bring back memories in daily life and contemporary issues through objects and gestures.

아이모먼트 | MOMENT  
+82-(0)10-7758-6609 imoment@naver.com

2020 창작지원 / Research [Street Arts]

## 싱크싱크 프로젝트

Sound in Sync, Sink in Street

시간과 간격을 제시하는 것이 '거리의 소리'라면 어떤 형태의 싱크가 가능할까? 이것은 어떤 움직임과 연결될 수 있을까?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간격을 음악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 정해진 지점-타이밍-싱크를 동시에 맞추는 것이 가능할까? 다양한 퍼포머들이 그 사이의 거리를 주관적으로 표현할 때에 그것을 모아서 한 번에 볼 수 있다면 이것은 어떤 서사를 가지게 될까? 거리와 소리, 움직임이 맞춰지는 장치를 만들 수 있을까?

What kind of syncing would be possible if presenting time and space were "the sound of distance?" What movement can this be linked to? Can we calculate musically the spacing of sounds from the streets? Is it possible to match fixed point, timing, and sync at the same time? When various performers subjectively express the distance between them, what kind of narrative will this have if they can be collected and viewed at once? Can we make a device that can match distance, wound, and movement?



'삼세판'은 모든 것이 다시 음악이 되는 움직임과 말(화법) 그리고 그 장면들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수집하는 단체이다.

'3SP' is a group that studies and coll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movements, language (speech), and scenes in which everything becomes music again.

삼세판 3SP  
+82-(0)10-2826-4664 sebinshin@gmail.com

2020 창작지원 / Research [Street Arts]

## 가려진 그러나 극명한 그것

Obscure but Obvious

지난여름 신촌역에 게시한 '국제 성 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광고판이 수차례 훼손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 뿌리내린 혐오와 차별을 드러내고 질문하는 작품을 구상하며, 현장에서 인권운동을 지속해온 현장 활동가들을 만났다. 우리가 발견한 것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연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

Last summer, the billboard for "International Day Against Sexual Minority Hate," which was posted at Sinchon Station, was damaged several times. We have met field activists who have continued the human rights movement in the field, devising works that question and reveal hatred and discrimination rooted in our daily lives. We are going to share about what we have found and what we are trying to do.



'코끼리들이 웃는다'는 커뮤니티와 장소특정형 공연형식의 작업을 기반으로 커뮤니티와 장소가 가진 이야기를 바탕으로 공연을 만든다.

Based on the 'Elephants Laugh' community and the work of a venue-specific type of performance, the performance is made based on the stories of the community and the venue.

코끼리들이 웃는다 ELEPHANTS LAUGH  
+82-(0)10-4592-6376 charlye337@hotmail.com

2020 창작지원 / Research [Street Arts]

## 욕망 서식지

The Home of Desires

서울을 탐험하는 이동형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5개 공간에서 펼쳐지는 멤버 5인의 각인각색 작품을 관객이 탐험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관람하는 형태이다.

We are preparing a portable performance to explore Seoul. It is expected to take about 12 to 16 hours in the form of an audience moving around on an exploration bus to see each of the five members' imprinted works in five places of Seoul.



'제5지대 스몰텐트'는 올해 20주년을 맞는 '열혈예술청년단'이 그간의 작업을 성찰하면서 '새로운 창작을 위한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결론 아래 결성한 유닛 그룹이다. '열혈예술청년단 제 5지대 스몰텐트'는 작가, 연출, 퍼포머 등의 구분을 두지 않고 또한 전시와 공연, 온-오프라인을 통합하는 총체적 쇼잉 방법을 연구한다.

'The 5th District Small Tent' is a unit group formed under the conclusion that there needs to be a "new framework for new creation," by the "Enthusiastic Youth Corps of Art," which marks its 20th anniversary this year. "The 5th District Small Tent of the Enthusiastic Youth Corps of Art" does not distinguish writers, directors, and performers, and also studies the overall showing methods that combines exhibitions, performances, online, and offline.

열혈예술청년단, 제5지대 스몰텐트  
YULHYUL ARTS GROUP, The Small Tent in 5th Territory  
+82-(0)10-2212-1549 the1075@naver.com

2020 창작지원 / Research [Street Arts]

## 프랙탈 실험

The Home of Desires

자연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불규칙과 역동의 공통점을 가진 파쿠르와 레이싱 드론의 움직임을 타악의 리듬으로 융합하여 거리예술 움직임 퍼포먼스로 개발하는 과정이다. 파쿠르와 드론 전문가들은 움직임을 융합하는 실험을 먼저 진행하여 예술가들에게 기술과 경험의 지식을 공유한다.

It is a process of developing a street art movement performance by fusing the movements of Parkour and Racing Drones, which have a common point of irregularity and dynamics, with the rhythm of percussion in the big frame of nature. Parkour and drone experts share their knowledge of skills and experience with artists by conducting experiments that combines movement first.



‘창작집단 숨비’는 실험적 시도, 탈경계, 예술 공유 네트워크를 목표로, 공연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간각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예술창작 작업을 시도하는 단체이다.

‘Creative Group SUM BI’ is a group that attempts various artistic creation works to form new synesthesia as well as performances, aiming at experimental trials, borderlessness, and networks that shares art.

창작집단 숨비 Creative Group SUM BI  
+82-(0)10-3511-1728 so4860@hanmail.net

2020 창작지원 / Research [Street Arts]

## 연희괴담

SAZA

오래된 문헌과 두루마리 그림에서 존재하던 옛이야기, 괴담 속 한국 전통 요괴의 이야기를 조사하고 이를 벽사의식 속 지신밟기와 함께 녹여내어 현대의 거리극에 맞게 재창작하고자 한다. 과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행해지던 지신밟기를 서울 도심 속 거리를 거닐며 행해봄으로써 우리 현대인의 하루와 마음에 안녕을 빌어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Investigating the old stories that existed in old documents and scroll paintings and the stories of Korean traditional ghosts in the ghost stories, and combining them together with Jisinbapgi in the mural ritual, we intend to recreate them to suit the contemporary street play. We hope that we will be able to pray for well-being of our modern people by walking through the streets of downtown Seoul, which Jisinbapgi was performed to pray for the well-being of the village in the past.



‘놀 플러스’는 전통 연희와 동시대라는 씨줄과 날줄을 새롭게 엮어가는 창작 연희단체이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연희자로서 전통의 지평을 올바르게 넓혀가고자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실험적인 작업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Nol\_plus’ is a creative performance group that newly combines the latitude and longitude of traditional performances and contemporary times. As a performer living in the present era, we are constantly challenging experimental work through collaboration with various artists in order to properly expand the horizon of tradition.

놀 플러스 NOLPLUS+  
+82-(0)10-8479-1258 motya12352@gmail.com

2020 창작지원 / Research [Street Arts]

## 나 지금 무엇과 / 흠칫

with us / Scratch of Street

거리와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일상 행동을 바라본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 순간 무엇과 함께하는지 질문한다. 혼자 일 수 없는 우리, 우리는 무엇과 어떻게 함께 하는가. 사람들의 일상의 움직임을 스트리트 댄스로 표현하며 그들과의 소통을 시도한다.

We look at the daily behaviors of people we meet in the streets and places. In doing so, we question, “With what do we spend time every moment?” For we cannot be alone, with what and how are we spending together. We try to communicate with people by expressing their daily movements in street dance.



거리에 존재하는 여러 ‘흠집’들을 바라본다. 긁힘·파임·부서짐 등의 흠집들. 그것을 통해 걸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들 안에 존재하는 흠집들도 본다. 어쩌면 나와 닮아 있는, 덮여 났지만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흠집들, 그것을 바라본다.

We look at the various “marks” on the streets. Scratches, dents, cracks, etc. Through that, we look at the flaws that exists in people although it is not visible. Perhaps, we look at flaws that are similar to ourselves, which are covered, but want to be looked at.

‘아트엘’은 신체 움직임을 중심으로 사운드·영상·시각예술 매체의 작가들이 콜렉티브 형식으로 작업 해오고 있다. 기호, 결합과 배치, 듣기 등에 관심을 가지며 움직임과 글자, 소리, 공간, 사물을 통해 작업을 이루어 간다. 공연과 함께 최근 다양한 리서치 프로젝트를 통해 작업의 방법론과 관점을 관객과 공유해오고 있다. ‘요벨’은 ‘아트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트리트 댄스 신진예술가들로 다원 예술·장애 예술·리서치 프로젝트를 통해 작업의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ArtEL & YOBEI’ has been working in selective format by artists of sound, video, and visual arts media, focusing on physical movements. We are interested in signs, combinations and arrangements, listening, etc., and work through movements, letters, sounds, spaces, and objects. Along with the performance, we have been sharing the methodology and perspective of our work with the audience through various research projects recently. “Yobel” is a group of rising street dance artists who are active in “artEL” and is expanding their scope of work through Dawon art, disability art, and research projects.

아트엘 & 요벨 ArtEL & YOBEI  
+82-(0)10-9857-5918 mayrho@hanmail.net

2020 창작지원 / Research [CIRCUS]

## 숨

Maybe, a Life

우리의 '숨'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그 '숨'의 노동이 멈추는, '삶'의 끝으로 가는 길을 상상해본다. 가볍게 두동실 떠오르는 것이 아닌,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 영혼의 모습을 30m 밧줄을 메인오브제로 하는 '숨'을 실현하기 위한 창작/제작 리서치 작업.

Our "breath" does not stop until we die. Imagine the path to the end of "life" where the labor of "breath" stops. Creation and research production work to realize "breath" using a 30m rope as the main object for the image of the soul rising hard rather than floating lightly.



'공연창작집단 사람'은 '예술은 개인의 것이다'라는 철학을 근본 삼아 창작을 하는 단체이다. 관객을 불특정 개인들의 순간 집합으로 바라보고 각 개인과의 밀접한 소통을 창작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 현재 서커스와 거리예술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며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진행, 계획 중에 있다.

'Creative group A Person;s' is a group that creates based on the philosophy, "Art is individual's."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create close communication with each individual and look at the audience as a momentary set of unspecified individuals. Currently, we are active mainly in circus and street art and is planning and working on collaboration with various fields.

공연창작집단 사람 A PERSON;S

+82-(0)10-9368-1445 aperson\_s@naver.com

2020 창작지원 / Research [CIRCUS]

## 거리의 낯선 구조물

Triple S: the Strange Structure of the Street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서커스 오브제가 아닌 오브제로 공연을 했을 때, '서커스라는 장르가 가지는 본연의 성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서커스에서 말하는 미학을 담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그것이 흥미로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리서치작업으로 종이관을 오브제로 사용하는 창작 리서치다.

It is a creative research that uses a paper tube as an object for research work that started with questions, "Can we capture the aesthetics of the circus without losing sight of the nature of the circus genre? And can it be interesting?" when performing as an object that is not commonly used circus object.



'초록소'는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많아 예술로 동시대를 재활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실험예술 연구단체이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와 협업하여 동시대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와 사회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주제 의식을 예술로 관계를 맺어 거리 답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융복합적 작업을 선보이며 예술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것을 지향한다.

'The Chorokso' is an experimental art research group that aims to rehabilitate the same age through art because of the artist's interest in the social responsibility. In collaboration with artists of various genres, we work to capture the streets through art in relation to the subject consciousness of various issues such as environmental issues, social issues, etc. that are faced in contemporary period. It is not limited to genres, but aims to expand the field of art by introducing convergent works.

초록소 THE CHOROKSO

+82-(0)10-3176-5763 thechorokso@gmail.com

2020 창작지원 / Producing [Street Arts]

## (주)미아스마트택배

Smart Delivery Co., Ltd.

수유동의 작은 사무실, 시장 상점과 주택가,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위 지하철 실버택배 노종자의 하루를 따라 걸어본다. 노동자 스스로가 본인의 일을 긍정하고 가치를 찾을 수 있길 더 불어 불합리한 고용환경과 조건 개선을 바라며 제작되었다.

Walk along the day of silver delivery worker in the small office in Suyu-dong, the market, shops, residential districts, stairs, escalators, and the subway. It was produced with the hope that workers themselves can affirm their work and find value, as well as improve the unreasonable employment environment and conditions.



'창작집단 미아'는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인근에 거주하는 젊은 예술가들이 모인 창작집단이다.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지만 또한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치 아래 다양한 형식의 공연 예술을 공동창작의 과정을 경유하여 제작하고 있다. 정치적 올바름과 예술적 유희의 간극에서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창작 활동을 지향한다.

'Creative Mia' is a creative group of young artists living near Mia-dong, Gangbuk-gu, Seoul.

Under the banner of "Everything can be art, but not everything can be art," various forms of performing arts are produced through the process of co-creation. We aim for creative activities that do not lose a sense of balance in the gap between political correctness and artistic play.

창작집단 미아 Creative Mia

+82-(0)10-9108-4427 daeeunnim@gmail.com

2020 창작지원 / Producing [Street Arts]

## 꼬이다, 풀리다

Twisted and Loosened

많은 만남으로 이어지는 우리 삶의 이야기를 확장해 태어나는 순간부터의 모습과 성장해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만남들을 두루두루 이야기에 담았다.

By expanding the story of our lives that lead to many encounters, the story from the moment of birth and the many encounters we encounter as we grow up are included throughout the story.



'창작중심 단디'는 인간의 다른 내면을 되비추고 반영하는 자유의지와 창의적인 예술성을 지향한다. 인간의 신체와 줄이라는 감각적인 소재를 통해 관객에게 새로운 감정과 의미를 전달하는 예술적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단체이다.

'Creative Dandi' aims for free will and creative artistry that reflects other inner parts of human beings.

It is an organization that constantly strives for artistic communication that delivers new sensibilities and meanings to the audience through the sensuous materials such as human body and string.

창작중심 단디 Creative Dandi

+82-(0)10-7158-7692 cre\_dandi@naver.com

2020 창작지원 / Producing [Street Arts]

## 피켓라인 : 은희에게 은희는

A Picket Line: Eunhee to Eunhee

요즘 여자들은 과거와 다르게 산다. 다양한 여성운동의 수혜를 입고 이제 가부장적 사회 속 여성의 위치와 태도를 지워나간다.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이야기한다. 정말 여자가 사는 세상이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모두가 똑같은 현재를 사는 것은 아니다. 어떤 집안일과 돌봄은 다시 다른 여성들에게로 되돌아갔다. 노년 여성 혹은 이주 여성들의 현재는 우리가 과거라고 돌아선 등 뒤에 멈춰있다. 보이지 않게 반복되는 여성 노동의 실체로서 일용직 여성 노동자들을 호명하고 이들이 실제 노동하는 시간을 퍼포먼스 내부로 가져온다.

Women these days live differently from the past. Having benefited from various women's movements, the position and attitude of women in the patriarchal society is being removed now. They talk while looking at a new future. It really seems like the world where women live has changed, but not everyone lives the same present. Some household chores and care went back to other women. The present of older women or migrant women has stopped behind us, with our backs turned away from the past. The audience is invited to a virtual secret organization that is organized by them.



'제너럴kunst'는 '극장이 아닌 장소에서의 퍼포먼스'에 흥미를 갖고 있다. 퍼포먼스 실현 장소의 이동은 결국 무대와 객석, 출연자와 관람자로 분리된 공간의 해체를 통해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공간적 해체에서 출발해, 관객의 존재가 전체 퍼포먼스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질문한다.

'General Kunst' is interested in "Performance in a place other than a theater." We think that the movement of the performance venue is eventually completed through the dismantling of the space separated by the stage, the audience, the cast, and the audience. Starting from spatial deconstruction, we question where the audience's presence is in the overall performance.

제너럴kunst General Kunst  
+82-(0)10-2675-0504 generalkunst@gmail.com

2020 창작지원 / Producing [Street Arts]

## 공공편의점

Public Convenience Store

지난 겨울 편의점 알바생으로 3개월간 반복되는 루틴의 노동을 하며 겪은 실제의 이야기와 실제 움직임 속에 실제상품들과 가상의 전시물을 놓고 편의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을 '다큐멘터리' 공연형식을 접목하여 공연을 만들었다. 실제와 공연이 혼재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관객들이 다시 한 번 '편의'에 대한 개념을 반추해보길 기대한다.

"Convenience Store" performance is a "documentary" performance combining the process of actually operating a convenience store with real products and virtual exhibits amid real-life stories and real movements experienced by working as a part-timer at a convenience store for three months last winter.

We hope that the audience will once again reflect on the concept of "convenience" in time and space where reality and performance are mixed.



'프로젝트 외'는 '왜, 극장공간이 아닌 외부공간에서 작업하는가? (Why And Exterior)' 라는 의문과 답안을 늘 상기하며 작업할 것을 기본 모티브로 하여 2010년 젊은 배우들과 무용수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이다.

Why do 'Project WAE' team work outside and not in the theater? It is a project group composed of young actors and dancers in 2010 with the basic motive of working with always recalling questions and answers to Why And Exterior.

프로젝트 외 Project WAE  
+82-(0)10-5779-5707 any5707@hanmail.net

2020 창작지원 / Producing [Street Arts]

## 해와 달에 관한 오래된 기억-해달기억장치

Old memories of the Sun and the Moon-Memory Device of the Sun and the Moon

이 작업은 기억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는 신화라는 인류의 오래된 기억을 가지고 와서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과 연결될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있다. 무대의 수동 메카니즘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연결시키는 장치들을 만들고, 몸의 경험에 대한 기억을 만들고 있다. 작품은 호주 원주민 신화 드림타임(Dreamtime)을 중심으로 해와 달에 관한 세계의 신화 원형을 사용하여 각색, 재창작한다.

This work is a story about memory. We are bringing back the old memories of mankind of mythology and creating new memories to connect with the children who are growing up now. Through the passive mechanism of the stage, we create devices that connect us and create memories of our body experiences. The work is adapted and recreated using the world's mythic archetypes about the sun and the moon, centering on Dreamtime, an Aboriginal mythology.



'극단 두'는 시노테크닉(무대기술, 극장기술)중 특히 수동 메카니즘의 구현을 통한 어린이극을 만들고 있다. 어린 시절, 도르레와 자석과 이탈 장치들이 주던 놀라운 연극적 마법의 순간들을 되살려 수동 메카니즘을 중심으로 한 연극을 선보이고자 한다.

'The Theatre Do' is creating a children's play, especiall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passive mechanism, among scenotechnic (stage technology and theater technology). We would like to present a play centered on a passive mechanism by reviving the amazing theatrical magic moments given by pulleys, magnets, and escape devices in our childhoods.

극단 두 Theatre Do  
+82-(0)10-4549-4895 dmiah@naver.com

2020 창작지원 / Producing [Circus]

## 조타; Steer

Steer

평온하고 잔잔한 파도에 천천히 가기도 하고 바람이 없어 잠시 멈춰 서있기도 하며, 때론 모진 풍파가 모든 걸 부숴버릴 듯 덮칠 때도 있다. 지나긴 항해를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서 가고자 하는 곳을 잊은 듯이 가끔 부여잡고 있던 키를 놓아버릴 때가 있다. 우리는 원치 않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더라도 진정 가고자 했던 그곳을 기대하며 설렘과 기쁨으로 항해하는 아름다운 조타수가 되어야 한다.

Sometimes it goes slowly on a peaceful and calm waves, sometimes stand still for a while because there is no wind, and sometimes a severe storm hits as if it will destroy everything. After a long voyage, there are times where we let go of the keys we hold as if we get tired and forget where we were going. We must be beautiful helmsmen who sail with excitement and joy in anticipation of where we really wanted to go, even if we were going to an unwanted place.



'화이트 큐브 프로젝트'는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 춤, 연기, 소리, 빛, 창작형 구조물, 서커스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흡수, 변형, 재구성하여 다양하고 흥미로운 공연 콘텐츠를 화이트 큐브 안에 담는다.

'The White Cube Project' is in order to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it absorbs, transforms, and reconstructs various elements such as dance, acting, sound, light, creative structure, circus, etc., and puts various and interesting performance contents in the white cube.

화이트 큐브 프로젝트 White Cube Project  
+82-(0)10-4730-8352 whitecube.pjt@gmail.com

2020 창작지원 / Producing [Circus]

## 코사인 그래프

Cosine Graph

언제 어디서나 쉽게 주문할 수 있는 배달음식처럼, 서커스도 내가 사는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상황과 장소에 맞춰 빠르게 설치, 해체 할 수 있는 간편한 자급자족 서커스

Just like delivery food that can be easily ordered anytime, anywhere, would not the circus be easily accessible from where I live? A simple self-sufficient circus that can be quickly installed and dismantl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and location



'64J (줄)'은 대표 박상현의 변함없는 몸 무게인 64kg과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1미터 이동하였을 때 필요한 에너지인 1J에서 동작을 효율적이고도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는데에서 착안한 단체명이다. 특정한 공간과 장소, 기예를 위한 설치무늬이 제약을 해체하고 새롭게 만들자는 내용을 64J의 에너지로 표현하고 있다.

'64J' is a group name designed to utilize the motion efficiently and sufficiently at 1 J, which is the energy required when an object is moved 1 meter with a constant weight of 64 kg and 1 Newton, which is the unchanging weight of Park Sang-hyun. It expresses the energy of '64J' to dismantle and recreate the installation restrictions for specific spaces, places, and arts.

64J (줄) 64J (Joule)  
+82-(0)10-7567-0707 64Jofficial@gmail.com

2020 창작지원 / Producing [Circus]

## 극동아시아댄스

Far Eastern Dance

동북아가 급격히 개방되던 시절, 서양의 카바레를 각양각색으로 받아들였던 한국, 중국, 일본 각국의 시대상 및 문화와 맞물려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운영되었던 한중일 3국의 카바레. 그곳에서 춤추고 노래한 여성들의 삶을 연구하고 그들의 몸짓을 공중에서 재해석한다.

During the rapid opening of Northeast Asia, the cabaret of the three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was operated in various forms in conjunction with the times and cultures of Korea, China, and Japan that accepted Western cabarets in various ways.



'들꽃체육관'은 공중공예를 기반으로 움직임과 개념의 연결 및 확장을 도모하는 컨템퍼러리 서커스 창작그룹

'Muscular Fairy' is a contemporary circus creation group that seeks to connect and expand movements and concepts based on aerial acrobatics.

들꽃체육관 Muscular Fairy  
+82-(0)10-2661-1797 gymcot@gmail.com

2020 창작지원 / Producing [Circus]

## 인더스트리

Industry

인류의 발전은 세상으로부터 나를 단절시켰다. 인간의 모습을 흉내낸 기술은...사람들의 영혼을 빼앗고, 우리를 파멸로 몰아 세웠다. 경이로운 인간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80분의 이야기

The development of mankind cut me off from the world. Technology that imitates human form... took away the souls of people and drove us to destruction. 80 minute story expressed by wonderful human movements.



'박골박스'는 라이브스탠트, 모션 퍼포먼스, 컨템퍼러리 마살 아트, 서커스, 스트리트아트, 공중무용, 설치미술 등 경계없는 장르의 예술가 및 퍼포머들이 모여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퍼포먼스 그룹이다. 더하여, "예술을 거칠게 표현하자"라는 그들만의 독특한 슬로건 아래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예술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Park Gol Box' is a performance group where artists and performers of boundless genres such as live stunt, motion performance, contemporary martial arts, circus, street art, midair dance, and installation art gather to deliver social messages. In addition, under their own unique slogan of "Let's express art wildly," they have been staging creative and experimental art activities.

박골박스 Park Gol Box  
+82-(0)70-8285-4416 info@parkgolbox.com

2020 창작지원 / Producing [Circus]

## 버스를 기다리며

Waiting for bus

인간의 삶을 단순한 '기다림'으로 정의하고, 그 끝없는 기다림 속에 나타난 인간존재의 부조리성을 보여주는 사무엘 베케트의 대표작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작, 부조리극의 정수 '기다림'에서 받은 영감을 서커스 오브제인 씨어휠로 풀어내기 위한 창작 작업이다. 원형 오브제인 씨어휠과 배우의 움직임을 통해, 세상 굴레 속에 갇혀 허우적대는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고, 물리적인 시간과 심리적인 시간의 표현을 통해 순환, 반복을 보여주며 이 세상의 모습을 씨어휠 안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

It is Samuel Beckett's representative work that defines human life as a simple "Waiting" and shows the absurdity of human existence in its endless waiting, and his creation work to unravel the inspiration of the Nobel Prize-literature winning work, Waiting for Godot, the essence of absurd plays. Through the circular object, Cyr-Wheel and the actor's movement, we tried to project ourselves trapped in the world's hoops, show circulation and repetition through physical and psychological expressions of time, and capture the image of the world in the Cyr-Wheel.



'월간서커스'는 서커스 아티스트 김중환의 1인 극단이다. 아크로바틱, 저글링, 마술, 벌룬아트, 버블쇼, 복화술, 전통연희 등 다양한 장르의 청년예술가들과 모여 서커스 기예를 하나의 언어로 활용해 사회에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작품 창작을 하며, 다각화된 기획·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단체이다.

'Monthly Circus Studio' is a one-person theater company by circus artist Kim Jong-hwan. It is an organization that gathers with young artists of various genres such as acrobatics, juggling, balloon art, bubble shows, ventriloquism, and traditional performances to create works that can ask meaningful questions to society.

월간서커스 Monthly Circus Studio  
+82(10)-9630-0000 keyup129@naver.com

2020 창작지원 / Circus Residency

## 잇츠굿

It's Good

땅 위 한 줄, 하늘 위 한 줄, 바람에 날리는 하얀 두루마리. 각자의 소망을 적은 종이를 들고 한 남자를 맞이하는 사람들. 땅 위의 줄타기를 마친 남자는 사람들의 소망 두루마리를 걸치고 더 높은 줄로 오른다. 6m 높이, 24m 길이 하늘 위 또 한 번의 줄타기를 마친 남자가 모두의 소망을 하늘로 날려 보낸다. 삶에 대한 위안과 희망의 순간, 우리 마음의 소리 It's good!

One string above the ground, one above the sky, and a white scroll blown by the wind. People who greet a man with a piece of paper with their wishes written on it. After finishing the tightrope act above the ground, the man wears the scrolls of people's wishes and climbs to a higher rope. A man who has finished another tightrope act in the sky, 6m high and 24m long, sends everyone's wishes to the sky. The moment of comfort and hope for life and the voice of our hearts are good!

'서커스창작집단 봉앤줄'은 2015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에서 진행된 서커스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서커스 기예인 봉(Chinese Pole)과 줄(Tight Wire)을 익힌 "안재현"에 의해 창단 되었다.

The circus creative team, "BONGnJOULE," was founded by Ahn Jae-hyun, who completed the circus expert training course offered by "Seoul Street Art Creation Center" in 2015 and learned circus Chinese Pole and Tight Wire.

봉앤줄 BONGnJOULE  
+82-(0)10-9193-6259 bongnjoule@gmail.com



2020 창작지원 / Circus Residency

## 비춤

Bichum

### 깊이 | 내 안에 죽은 것과 살아남은 것

이곳은 치열함과 불안정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한 인간의 마음속 안. 그 안에 사는 여러 자아(ego)들 중 한 자아(ego)가 고군분투 한다.

### Depth(Gip-p) | Things that are dead and alive in me.

This place is in the heart of a human being who lives in a fierce and unstable reality. One of the many egos living in it struggles.

### 추 | 순간의 선물

인간에게 가장 위대하면서도 무서운 것은 바로 시간이다.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시간과 세월의 흐름 속에 다 변해간다. 우리 인간은 이 시간이라는 제약과 한계 속에서 생을 살아가고 있다. 깨어있는 바로 이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닐까?

### Pendulum(Chu) | Gift of the moment

The greatest, but most frightening thing for humans is time. Time does not wait for us no matter how hard we try to hold it. Everything in the world changes over time. We, humans, live our lives under the constraints and limitations of time. Isn't this moment of being alive a gift for us?



### 물낫 | 우물에 얼굴을 비추듯

우리는 '나'의 모습을 얼마나 보고 살아가고 있을까? 일상에서의 나의 정체는 가변적인 '나'이다. 이것은 진짜처럼 보이는 환상이다. 이상 세계와 유한한 인간세계의 접점, 수면위의 '나'를 바라보며 나의 본질은 내가 찾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 Surface(Mul-not) | Like reflecting a face in a well

How much do reflect on ourselves as we live? My identity in everyday life changes. This is an illusion that seems real. Looking at the interface between the ideal world, the limited human world, and myself on the surface, I realize that my nature is something that I need to find.

### 술사 |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마리오네트 인형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여 우리를 자각하도록 변화시키는 거울이자 자화상과 같다. 묶여 '조종'당하는 것이 아닌, 연결되어 '상호작용 한다'의 의미로 재해석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 개개인에게 새로운 의미가 될 것이다.

### Puppeteer(sul-sa) | We are masters of our lives.

Marionette dolls are like mirrors and self-portraits that project our image as it is and change us to be self-aware. Rather than being tied up and being "manipulated," it will be reinterpreted in the sense of being connected and "interacting" and become a new meaning for each individual in the society in which we live.



'포스(FORCE)'는 신체 움직임을 비롯한 서커스, 무용, 무술 등 다양한 예술(art)과 인터랙티브아트(i.A),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c.T)의 다양한 디지털 아트 기술(technology)을 접목시킨 극(drama)의 창작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설립되었다.

'FORCE' was established in 2016 with the aim of continuing to study and demonstrate the creation of drama, which combines various art, interactive art (i.A), and creative technology (c.T) including physical movements, circus, dance, martial arts, etc.

포스 FORCE  
+82-(0)10-3026-5205 master@force-artech.com

2020 창작지원 / Study

### Culture Technology 리서치 자료집

Culture Technology Research Document

역학 에너지(물, 불, 바람, 전기 등)와 기술의 결합을 통해 거리예술·서커스 분야가 다양한 표현방식을 갖는데 주력하여 역학 에너지를 활용한 공연 기술 분야의 국내외 적용 사례를 집중 분석하고 적용된 기술의 원리와 이론의 향후 활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Through the combination of dynamic energy (water, fire, wind, electricity, etc.) and technology, the street arts and circus fields focused on having various expressions, intensively analyz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application cases of performance technology using dynamic energy, and conducted research for future use of applied technology and theory.



‘예술불꽃 화(花,火)랑’은 불과 불꽃이 가지는 무수한 상징성을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다양하게 창작하고자 새로운 형식의 불꽃공연을 통해 불꽃이 하나의 공연예술장르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HWARANG Art pyrotechnics’ tried to create various works that introduces countless symbolism of fire and flame. They are striving to make new forms of flame performance as their purpose is making people see the true value of flame as a performance art genre

예술불꽃 화랑 Hwarang Art Pyrotechnics  
pyrokwak@gmail.com

2020 창작지원 / Study

### 박자단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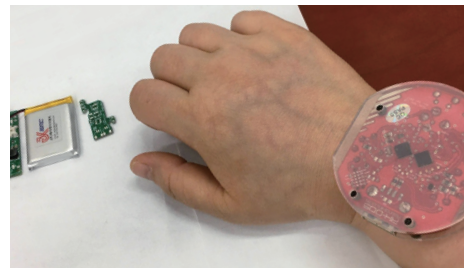
Beat Group Project

음악의 요소중 ‘박자’를 전면으로 내세워 누구든지 참여하여 박자를 맞추면 결국 음악이 될 수 있는 형식을 갖출 수 있도록 프로토타입을 제작했다. 관객과 함께하는 8인의 박자단을 위한 이 리서치는 아래와 같이 세 영역으로 나뉘어있다.

- 악기 프로토타입의 제작 : 간단한 형태로 누구에게나 쉽게 부착되는 형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연주가 가능하도록 제작
- 연주하게 될 음악제작 : 프로토타입을 연동하여 작업
- 관객과 연주자를 위한 스피커 시스템 : 공간적 제약의 한계를 극복을 기반에 둔 연구

Among the elements of the music, “beat” was imposed to create prototype so that if anyone participates and matches the beat, it can eventually become music. This research for the beat group of 8 members with the audience is divided into three sections as follows.

- Production of musical instrument prototypes: A simple form that can be easily attached to anyone. It is designed to play with minimal movement.
- Music production to be played: work by linking prototypes
- Speaker system for audiences and performers: Research based on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spatial constraints



‘하울링’은 2013년에 설립된 사운드/음악분야 예술가들로 구성된 단체. 국내 비주류 장르 활성화에 관심있는 예술가 네트워크로 조그만 힘을 보태며 활동중이다.

‘Howling’ is a group of artists in sound and music fields, established in 2013. As a network of artists who are interested in revitalizing non-mainstream genres in Korea, they are active with small force.

하울링 Howling  
morogadobae@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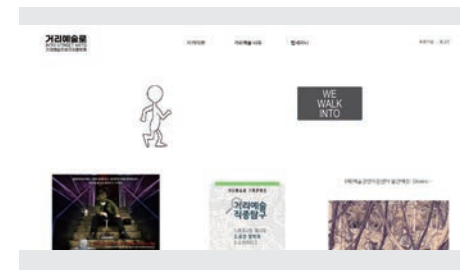
2020 창작지원 / Study

### 거리예술로

Into Street Arts

국내 거리예술의 지속가능을 위해 거리예술계의 방향성 있는 담론과 소통이 지속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제작 및 운영을 위해 시작한 연구다. PC와 모바일이 연동되는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국내외 자료공유 뿐 아니라 거리예술의 개입, 코로나 시대의 거리예술 등 동시대의 이슈를 이야기 한다.

The study was initiated to produce and operate a digital platform where directional discourse and communication in the street art community can continue for the sustainability of street art in Korea. On the digital platform that connects PC and mobile, it not only shares domestic and foreign data, but also talks about contemporary issues such as the intervention of street art and street art in the Corona era.



‘위워크인투’는 2020년 설립된 연구단체로 거리예술 분야의 연구, 교육, 교류, 정책제안을 위해 민간 기관으로서 해야 할 몫을 찾고 예술가, 축제, 관객, 공공기관과 소통하여 이를 수행함으로 건강한 거리예술 나아가 공공예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미션으로 두고 있다.

‘We Walk INTO’ is a research group established in 2020, it seeks out what it should do as a private institution for research, education, exchange, and policy proposals in the field of street art, and communicates with artists, festivals, audiences, and public institutions to achieve healthy street art and public art ecosystem.

위워크인투 We Walk INTO  
hwangfunky4@msn.com

2020 창작지원 / Study

### 컨템포러리 마이스터

Contemporary Meister

산업화된 사회속에서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 현실에 맞서 국내 서커스를 지켜냈던 근대 서커스 예인들이 왜 컨템포러리 마이스터로 가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는지, 서커스와 노동은 어떻게 연결되어졌는지, 개인의 역사와 시간은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등 사라져 간 서커스 예인들을 통해 서커스와 노동, 서커스와 인문학적 연결고리를 찾아 컨템포러리 마이스터를 리서치해보고자 한다.

Why did the modern circus performers, who protected the domestic circus from being replaced by machines in the industrialized society, did not become contemporary meisters and disappeared behind the scenes of history? How are circus and labor connected? How do we interpret individual’s history and time? We would like to research contemporary meister by finding the link between circus and labor and circus and humanity through circus performers who disappeared.



‘프로듀서그룹 도트’는 연극, 무용, 다원예술분야에서 축제, 공연 제작, 해외 유통, 국제 네트워크 기획 등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 프로듀서 콜렉티브 단체다.

‘Producer Group Dot’ is a professional producer collective group that has accumulated diverse experiences in the fields of theater, dance, and multi-arts, such as festivals, performance production, overseas distribution, and international network planning.

프로듀서그룹 도트 Producer Group DOT  
bmchoipd@gmail.com

2019 창작지원 / Research

## 꼬이다, 풀리다

Twist and Unite

‘창작중심 단디’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꼬이다, 풀리다>는 기존 벽과 허공을 이용한 퍼포먼스와는 다르게 그라운드에서 펼쳐지는 줄을 이용한 공연이다. 두 줄 혹은 세 줄이 서로 교차해서 만들어 낸 다양한 움직임들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간의 삶과 유사하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움직임 공연을 지속적으로 창작할 계획이다.

Newly unveiled by Creative Dandi, ‘Twist and Unite’ is a performance presented using ropes unfurled across the floor, unlike the group’s other performances, which use walls and the air as the main stage. The various movements expressed using two or three intertwined ropes bear resemblance to the complex tangle of human lives. Dandi will continue to create performances with various movements focusing on such resemblances.



‘창작중심 단디’는 인간의 다른 내면을 되비추고 반영하는 자유의지와 창의적인 예술성을 지향한다. 또한, 인간의 신체와 줄이라는 감각적인 소재를 통해 관객에게 새로운 감각과 의미를 전달하는 예술적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Creative Dandi’ pursues free will and artistic integrity to reveal and reflect other internal aspects of human beings. Furthermore, using the human body and ropes, the group tirelessly strives to achieve artistic communication with the audience to deliver new sensibilities and meanings.

창작중심 단디 Creative Dandi

+82-(0)10-7158-7692 cre\_dandi@naver.com

2019 창작지원 / Research

## 무임승차

Free Ride

지하철 택배의 선구자 ㈜미아스마트택배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활용하여 독보적인 산업적 이익을 창출한다. 이번 홍보 주간은 ㈜미아스마트택배의 작동 원리부터, 역사, 수익 구조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나아가 현재 지하철 택배의 생태와 주요 쟁점, 이와 관련한 ㈜미아스마트택배의 비전도 공유될 예정이다.

A pioneer in subway courier services, Mia Smart Courier Service Inc. uniquely generates profit through the free riding system for seniors. This promotional week has been arranged for participants to explore Mia’s business model, revenue structure and history. Furthermore, the company will share its view on the current ecosystem of the subway courier industry, main issues, and Mia’s vision in the industry.



‘창작집단 미아’는 극장 안팎을 넘나들며 공연을 만들고 있는 단체이다. 공연예술에서 극장의 역할을 질문하고 창작자와 관객의 고정된 경계를 허물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Creative Group Mia’ performs inside and outside of theaters. Questioning the roles of theaters in performing arts, the group strives to knock down the fixed border between creators and the audience.

창작집단 미아 Creative MIA

+82-(0)10-8464-3266 thwj7664@naver.com

2019 창작지원 / Research

## 리서치 프로젝트 : 온 더 무브

Research Project : On the Move

‘시적극장’의 <리서치 프로젝트: 온 더 무브>는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극장이나 역사적 공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기존 작업 방향에 대한 리마인드와 함께 거리와 광장이라는 유동적 공간에서 설치극장(Installation Theatre)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떠한 시적 순간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리서치 과정을 웹 기반 아카이브 온/오프라인 전시를 통해 보여준다.

Poetic Studio’s Research Project: On the Move covers the topic of transformation from a closed space to an open space. Its web-based and offline exhibitions are not only reminiscent of the group’s previous work, which mainly revolved around theaters and historic spaces, but also show the process of research on ways to compose “installation theater” in the streets or town squares with a floating population and the kinds of poetic moments that can be created along the way.



‘시적극장’은 무대 미술가 신승렬과 김혜림, 매체 음악가 박승순, 사운드디자이너 베일리홍, 드라마투르그 전강희로 구성된 창작 그룹으로, ‘무대와 음악/사운드’ 중심의 극적 언어를 탐색하고 있다. 획일화된 일상 속에서 시적인 순간들을 마주할 수 있는 ‘상상/해방 공간’을 설치극장 형식으로 구축하고 있다.

‘Poetic Studio’ is a creative group consisting of stage artists Seung-ryul Shin and Hye-rim Kim, media musician Seung-sun Park, sound designer Bailey Hong, and dramaturg Gang-hui Jeon, which focuses on the theatrical language based on stage, music and sounds. It builds “imaginary and liberating spaces” in the form of installation theater, through which people can witness poetic moments in their routinized daily lives.

시적극장 POETIC STUDIO

+82-(0)10-4121-8698 tldtnd98@naver.com

2019 창작지원 / Research

## 아마도 여기(가제)

Maybe Here(working title)

사회적 몸의 가능성과 한계를 경험한 이후의 나는 무엇이 필요할까? 또 한 번 바뀌었지만, 또 다시 변하지 않은 오늘을 나는 살고 있다. 내일은 여전히 희미하다. <아마도 여기(가제)>는 2020-21년에 완성할 ‘갈매’의 두 번째 창작품이다. 이번 2019 싹 브리핑 발표에서 <아마도 여기(가제)>의 창작 초기 단계를 공유하고자 한다.

What do I need after experiencing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a social body? I am living a today that has changed once before but will not change again. Tomorrow remains dim. Maybe Here (working title) is GALMAE’s second work that will be completed in 2020 or 2021. At the SSACC Briefing 2019, GALMAE will share its first creative step.



‘갈매’는 공공장소를 기반으로 창작하는 공연예술단체이다. 마르세유에 소재한 거리예술 전문교육기관 페이(FAIAR, Formation sup-rieure d’art en espace public)를 졸업한 한국의 젊은 연출가 이주형이 2017년 창단하였다.

‘GALMAE’ is performing arts group whose creative activities are based on public places. It was founded in 2017 by a Korean young director named Ju-hyeong Lee, who graduated from Formation sup-rieure d’art en espace public (FAI-AR), an educational institute based in Marseille, France that specializes in street arts.

갈매 GALMAE

+82-(0)10-4217-0255 ciegalmae@gmail.com

2019 창작지원 / Research

## 극동아시아댄스

Far Eastern Dance

동북아가 급격하게 개방되던 시절, 서양의 카바레 문화를 각양각색으로 받아들였던 한국, 중국, 일본. 급변하는 사회에도 여전히 보수적인 여성상을 고수했던 동경의 카바레와 한국전쟁 직후 살아남기 위해 미군의 입맛에 맞는 공연을 선보였던 서울의 카바레 그리고 오랜 무역의 역사로 스며든 서양의 쇼 문화에 자신들만의 색깔을 입혀 상업적으로 활용했던 상해의 카바레. 그곳에서 춤추고 노래하던 여성들의 모습을 현대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에서 느닷없이 보여준다.

At a time when Northeast Asia was rapidly opening up to Western culture, Korea, China and Japan adopted Western cabaret culture in various ways. Tokyo's cabarets adhered to the conservative image of women in spite of the drastically-changing society; Seoul's cabarets presented performances that suited the tastes of the American military as a means of sustenance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Korean War; and Shanghai's cabarets, as Western culture had long permeated into Chinese culture through international trade, added their own color to Western show culture as a commercial tactic. The performances of the women who once danced and sang in such establishments are now suddenly unfolding amid the scenes of everyday life among people of the modern era.



‘들꽃체육관’은 1인 서커스 예술가로, 에어리얼 후프, 에어리얼 실크 등 공중곡예를 기반으로 한 서커스 창작자 및 실연자이다.

‘Muscular Fairy’ is a circus artist who creates and performs a circus based on aerial acrobatics including aerial hoop and aerial silk choreography.

들꽃체육관 Muscular Fairy  
+82-(0)10-2661-1707 gymcot@gmail.com

2019 창작지원 / Research

## 우주비행선 Cyr Wheel

Spacecraft\_Cyr Wheel

여느 때와 다름없이 똑같이 시작하는 하루, 모두 이른 새벽부터 자신의 위치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여기 남들보다 빨리 하루를 시작한 청소부의 눈앞에 우주선이 나타났다..?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청소부는 우주선(cyr wheel)에 올라타 꿈에 그리던 우주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One ordinary day that began the same as usual; everyone wakes up early in the morning to start the day in their own roles. All of a sudden, a UFO appears before a cleaner, who started the day earlier than others. Hoping to escape from reality, the cleaner hops into the UFO and embarks on a journey through outer space.



‘휠러스’는 서커스 오브제 씨어 휠(Cyr Wheel)과 드라마의 만남. 여러 가지 실험정신을 가지고 씨어 휠을 사용하여 공연을 선보이는 단체이다.

‘Wheelers’ is a encounter between a circus object-Cyr wheel-and drama. The group showcases experimental performances using the Cyr wheel.

휠러스 Wheelers  
+82-(0)10-9977-7247 minyoung724@hanmail.net

2019 창작지원 / Research

## 서커스 아일랜드

Circus Island

서커스를 처음 시작했던 무렵부터 꿈꾸었던 나의 서커스 텐트는 2015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의 구조물 제작 워크숍 ‘기둥 없는 서커스 텐트’로 모델링이 되었고, 이후 꾸준히 구조를 연구하고 고민하였다. 공중에 많은 장치들과 아티스트들이 매달려도 될 만큼의 안정성을 갖추고, 자연을 담을 수 있는 (비, 바람, 눈, 구름 등) 상상 가득한 극장이 되길 바란다.

My own circus tent, which I had dreamed of since I first started circus, was modelled as “a circus tent without pillars” in the installation art workshop at Seoul Street Arts Creation Center in 2015, and since then, the structure has become a matter of research. I hope the theater is secure enough to hold any aerial devices and artists in the air and imaginative enough to incorporate nature (rain, wind, snow, clouds, etc.).



남도의 작은 섬에서 자란 바다 소년 ‘마린보이’는 2003년 서커스 공연을 시작으로 지난 16년간 많은 작품을 만들어왔다. 수제작으로 만든 작은 미니 자동차부터 뱃고동 소리가 나는 장치, 폐지 줍는 할머니 로봇(작품<고물수레>) 등 직접 구상하고 만들어낸 장치들로 작품을 만들어 관객과 소통해왔으며,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접점에서 세상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중이다.

‘Marin Boy’, who grew up on a small island in the southern region of Korea, has produced numerous works over the past 16 years since he started circus performances in 2003. Designing and making devices including hand-made minicars, a device making a foghorn sound, and an old lady robot picking up scrap paper, he communicates with people via devices manufactured directly and asks questions about the world at the point where art and technology meet.

마린보이 MarineBoy  
+82-(0)10-9186-0045 marineboycircus@gmail.com

2019 창작지원 / Research

## 코사인 그래프

Cosine Graph

접근성이나 효율 면에서 이점을 살려 슬랙 로프 및 와이어와 거리공간이 만나는 지점을 탐구하였다. 다양한 공간의 구조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슬랙 로프 및 와이어를 이용한 리서치를 진행하였고 ‘언제 어디서나 자생할 수 있는 공연’의 전 단계를 쇼케이스 형식으로 발표한다.

The point of contact between a slack rope or wire and a distant space was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accessibility and efficiency. 64 J conducted research using slack ropes, wires and various spatial structures in order to showcase the pre-performance stage where the performance can be self-sustainable regardless of time and space.



‘64J (줄)’은 64kg의 물체를 1m/s로 1m 움직일 때 필요한 에너지의 양으로, 대표 박상현의 변하지 않는 몸무게이기도 하다. 신체를 중심으로 공연을 만들 때 64J의 일=움직임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가 또한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특정한 공간과 장소 그리고 기예를 위한 설치 등에서 오는 제약을 즐거운 상상을 통해 해체하고 새롭게 만들어 가는 단체이다.

‘64J’ is the amount of energy exerted to move an object of 64 kg for a distance of one meter at 1 m/s, and 64 kg is body weight of Sang-hyeon Park, the leader of the group. The group was founded on a question: How can the formula of “64 joules of exertion = movement” be used efficiently to its full potential when creating a performance based on the human body? The group dismantles limitations creates something new from certain spaces and installations used for acrobatics through their joyful sense of imagination

64J (줄) 64J (Joule)  
+82-(0)10-7567-0707 64Jofficial@gmail.com

2019 창작지원 / Research

## 필더씨

Feel the Sea

쇼케이스로 선보일 <필더씨>는 리서치 과정에서 만들어낸 행위와 사운드, 이미지를 통해 관객으로 하여금 바다를 연상하게 한다. 이는 인생의 과정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관객은 각자 스스로의 삶의 과정을 대입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Unveiled in its first showcase, <Feel the Sea> will remind the audience of the ocean through the movements, sounds and images created during its research process. It is a metaphor for life as a sailing voyage across a boundless open sea. The audience will be able to relate the work to their own lives.



'화이트 큐브 프로젝트'는 호흡과 타이밍, 감정표현과 움직임, 사물과 신체의 구성을 모토로 움직임의 관과 관객과의 소통과 교감을 위해 항상 도전하는 단체이다. 춤, 연기, 음악, 빛, 구조물, 서커스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흡수, 변형, 재구성하여 다양하고 흥미로운 공연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극장 및 실내외 특정 공간을 활용한 여러 유형의 공연을 만드는 단체이다.

'The White Cube Project' creates movements using breathing, timing, emotional expressions, motions, formations of objects and bodies, and undertakes continuous challenges for better communication with the audience. Absorbing various components including dance, acting, music, structures and circus, the group transforms and restructures them into intriguing new content and stages different types of performance art in theaters and various indoor and outdoor spaces.

화이트 큐브 프로젝트 White Cube Project  
+82-(0)10-4730-8352 whitecube.pjt@gmail.com

2019 창작지원 / Research

## 컨템포러리 마이스터: 일상적 서커스에 대한 리서치

Contemporary Meister : A Research on Everyday Life Circus

서커스는 무엇이며, 서커스적인 것은 무엇일까. 더 나아가 서커스라는 개념 안에서 동시대라는 시간성과 일상의 공간성이 조우하게 된다면, 이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명명할 수 있을까. <컨템포러리 마이스터: 일상적 서커스에 대한 리서치>가 지나온 시간의 궤적은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여정임과 동시에 다시금 반복적으로 동일한 질문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문자 그대로 '리-서치'의 과정이다.

What is a circus and what is circus-like? And when the temporality of "contemporary" and the spatiality of everyday life meet within the concept of the circus, how can we explain the resulting phenomena caused by this encounter? The path taken by <Contemporary Meister: A Research on Everyday Life Circus> constitutes a journey to find answers for the aforementioned question as well as a process of literal "re-search," that keeps coming back to the same question.



'프로듀서그룹 도트'는 연극, 무용, 다원 예술 분야에서 축제, 공연 제작, 해외 투어 기획-운영, 국제 네트워크 기획 등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 프로듀서 콜렉티브 단체이다. 그중 최봉민과 소경진, 손옥주가 모여 일상에서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기예, 그리고 그 기예와 맞닿아 있는 서커스의 일루전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였다.

'Producer Group DOT' is a professional producer collective, founded by Bong-min Choi, Kyeong-jin So and Ok-ju Son, based on their curiosity toward the unique skills shown by ordinary people that they met in everyday life, and circus illusions that are connected to such skills.

프로듀서그룹 도트 Producer Group DOT  
+82-(0)10-9991-9173 bmchoipd@gmail.com

2019 창작지원 / Producing

## 어디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향하는 것도 아니다

Neither From Nor Toward

거리와 극장의 물리적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극장의 규칙들이 발생하는 순간 우리는 극장을 느끼는 동시에 혼란을 겪게 된다. 작품의 공간은 거리도 극장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사이에 있는 상태가 된다. 고정된 규칙들에 속하지 않은 어떤 사이 상태로 인해, 이제 어떤 것도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없고, 어디로 향할지도 알 수 없다.

When rules of the theater appear on the street despite the differences in physical conditions between the street and the theater, we become mired in confusion in spite of sensing the theatricality that is occurring. The space where the performance is staged becomes a place that is neither a street nor a theater. Because of the in-between state that is not tied down by fixed rules, we can no longer know what will come from where nor what will go where.



'종달정(유지영)'은 안무자 및 퍼포머로 활동하고 있다. 신체의 이데올로기적 관념에 대한 질문을 2015년부터 지속해서 던져왔으며 최근에는 실제와 현존에 관심을 두고 있다. 거리와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작업으로는 <인체도>, <그래야만 한다>, <신체부위의 명칭에 대한 의문>, <두를 위한 몸만들기> 등을 발표하였다.

'Jiyoung Yoo(Jongdaljeong)' is a choreographer and performer. It has cast questions about ideological notions around the body since 2015 and now focuses on the themes of reality and existence. The group is encountering audiences in the streets and theaters and has presented <Canon of Proportions>, <It, Should>, <Questions about the Names of Body Parts>, <Body Building for the Head>.

종달정 Jongdaljeong  
+82-(0)10-9945-5166 dbwldud1031@naver.com

2019 창작지원 / Producing

## 인간장수를 모집합니다

Human Seller Recruitment

인간은 오랜 시간 언어와 문명을 이루고 발전을 하면서, 우리 인간 그리고 나 자신의 편의를 위한 선택들은 점점 이기적으로 변모해왔다. 이 이기적인 선택들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인간장수를 모집합니다>는 그동안 무심결에 지나치듯 행했던 선택들에 대한 우리 인간의 문제적인 모습을 인간과 인형 그리고 관객을 통해 역설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Throughout the long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languages and civilizations by humanity, the choices we make for our convenience have increasingly become selfish. These choices are now almost reaching an end. <Human Seller Recruitment> paradoxically demonstrates the problematic behaviors that we had displayed without thinking, as reflected through human beings, dolls and the audience themselves.



'조음기관'은 인형, 오브제, 기획, 설치, 무대, 배우, 광대, 전통, 무용 등 다양한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단체이다. 사전적 의미로의 조음기관은 소리 내어 말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인체기관을 뜻한다. 서로 다른 기관의 연결된 움직임이 발화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구성원들의 작업은 하나의 본질적인 소리를 향한 탐구로 이어진다.

'Articulator' consists of experts specializing in various genres including dolls, objects, planning, installation, acting, clowning, traditional arts, dance, etc.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an articulator is any organ required for vocalization. As a voice is created through the interconnected movements of articulators, the work of each component or member is directed toward the exploration of one primal sound.

조음기관 Articulator  
+82-(0)10-2275-2999 wljud5539@naver.com

2019 창작지원 / Producing

## 망각댄스\_4.16편 서울망각투어버스

Dance of Oblivion 4.16\_Seoul tour bus of Oblivion

반복되는 바쁜 일상 속에 혹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인간을 우선순위에 밀어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을 외면하고 다른 곳을 바라봄으로 인해 우리는 정말 중요한 눈앞의 것들을 놓칠 수 있다. <망각댄스\_4.16편>은 우리가 일상에서 망각을 통해 놓친 소중한 것들을 다시 기억해내도록 유도할 것이다.

Amidst the repetition of our busy everyday lives, are we perhaps forgetting the most important thing? In a reality where human beings are no longer the priority, we might miss the most important things if we turn a blind eye to what is happening right in front of us. Dance of Remembrance: April 16 seeks to help us remember the precious things that we have forgotten in our everyday lives.



‘극단 신세계’는 새로운 세계, 믿을 수 있는 세계를 만나고 싶은 젊은 예술가들의 모임이다. 이 시대가 불편해하는 진실들을 공연을 통해 자유롭게 하고자 한다. 주제와 형식의 제약없이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몸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Drama New World’ is a company of young artists who wish to encounter a new world that is worthy of their trust. The group seeks to address the uncomfortable truths of our era through their performances, telling today’s stories through our language and our bodies without constraints.

극단 신세계 The Theater Maker New World  
+82-(0)10-8761-7233 newworld\_s@naver.com

2019 창작지원 / Producing

## 정당한 영광 : 두 번째 삶

Righteous Glory : The Second Life

‘정당한 영광 : 두 번째 삶’은 노동의 대가가 개인의 영광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노동의 정당한 영광은 사회적 인정이나 보수에서가 아니라 내가 수호해야 하는 것을 지켜냈을 때, 그 때 빛났다. 우리가 이번 작업을 통해 말하고 싶은 노동의 정의이다. 어쩌면 노동이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지시받는 일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생각도 해본다. 각자 삶의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행위, 그런 움직임 모두가 ‘노동’의 일부이고, 우리는 모두 정당한 영광 속에서 살고 있다

<Righteous Glory : The Second Life> is the story of whether the price of labor leads to personal glory. The legitimate glory of labor shined when I defended the things that I had to protect, not when I earned social recognition or a wage. The message that we want to deliver through this work is the definition of labor. Perhaps labor does not necessarily connote the act of doing whatever we are told to do within a company. Protecting what is precious in our individual lives might also represent an aspect of labor. In this regard, we are all living in legitimate glory.



‘양서류와 벗님들’은 진솔한 토의의 약자인 ‘진토’라는 창작집단으로 활동하다가 관객이 ‘창작은 난해하다’라는 선입견 없이 쉽게 작품을 관람하길 원하는 마음에서 단체명을 양서류와 벗님들로 변경하였다.

The creative group ‘Amphibian & Buddies’ were once named ‘Jinto’, meaning “honest discussion,” but renamed itself in the hope that the audience would be able to enjoy their performances at ease without the preconception that “creativity is abstruse.”

양서류와 벗님들 Amphibian & Buddies  
+82-(0)10-2008-9220 114641@naver.com

2019 창작지원 / Producing

## 돌, 구르다

Rock, Rolling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 사내. 그의 환영을 통해 드러나는 가정에 대한 그리움,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 타인에 대한 절절한 목마름, 감춰진 로맨스와 열망들까지, 그러나 우리는 한 인간의 서정과 자유가 사회와 공권력의 비인간적 폭력 앞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 이 작품은 개인과 사회 사이의 불편하고 유묘한 경계선에 서있는 노숙자라는 캐릭터를 통해, 사회를 고발하려 한다. 동시에 인간의 부조리한 실존을 고백하려 한다.

A homeless man living on the street. His longing for family, nostalgia for childhood, want of affection from others and hidden romance and desires all seep through his illusions. However, we only witness a human being’s character and freedom collapse before the inhumane violence of society and public authority. This performance aims to expose the contradictions in our society through the homeless man, who is standing at the uneasy but significant borderline between individuals and society, and to address the irrationalities of human existence.



‘비주얼씨어터 꽃’은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이 통합된 시각연극 Visual Theater를 추구하는 공연예술단체이다. 2000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The School of Visual Theater’에 재학 중이던 이철성에 의해 창단되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CCOT’ is a performing arts troupe that pursues a form of visual theater that integrates visual arts and performing arts. Founded in 2000 by Cheol-seong Lee, who studied at the School of Visual Theater in Jerusalem, Israel, ‘CCOT’ is an internationally active group.

비주얼씨어터 꽃 CCOT  
+82-(0)10-2396-1020 namunun@hanmail.net

2019 창작지원 / Producing

## 서울탈춤

Seoul Talchum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우리 고유의 거리공연이자 공동체 예술인 ‘탈춤’. 탈춤의 동시대성과 공동체성을 살리고 탈춤이 가진 전통의 의미를 살리며 지금 현재 우리의 공연으로 만들고자 한다. 현대 도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형식의 공연예술 활동을 해왔던 극단 서울괴담이 현재 서울의 대표적인 이야기와 캐릭터를 발굴하고 탈과 춤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우리 고유의 거리예술을 통해 시민과 만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다.

‘Talchum’(masked dance) is one of Korea’s many traditional street and community arts. Accentuating the contemporaneousness, community spirit and traditional significance of masked dance, Seoul KEDAM recreates talchum as a performing art form of here and now. The theater company Seoul KEDAM, which has staged various forms of performing arts with a focus on modern urban problems, now delves into the stories and characters that embody Seoul and encounter its citizens through this long-term project involving traditional Korean street arts.



‘극단 서울괴담’은 현대도시의 터무니없는 현상들을 괴담의 형식으로 재조명하여 현시대에 질문을 던지는 극단이다. 밀폐된 극장을 벗어나서 거리 또는 특정장소에서 새로운 형식의 연극을 통하여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우리는 창작과 공연을 통하여 소외된 자들의 불안과 고통을 이해하고 감추어진 이슈에 주목한다.

‘Seoul KEDAM’ transforms the absurd phenomena found in modern cities into scary stories and rephrases them as questions cast toward the contemporary world. Escaping the closed space of the theater, the company casts a light on individuals’ problems within the community via new forms of theater that take place on the street or specific locations. Through its creative activities and performances, ‘Seoul KEDAM’ understands the pain and anxiety of the neglected, and highlights hidden issues.

서울괴담 Seoul KEDAM  
+82-(0)10-4157-7093 yybong2@hanmail.net

2019 창작지원 / Producing

## 세시에서 세시, 네시에서 네시

3pm to 3pm, 4pm to 4pm

새벽 어스름. 정오의 태양. 노을. 그리고 어둠. 빛과 시간은 한 몸 같다. 틀림없게 움직인다. 당신과 나는 똑같이 '좋은 아침!' 인사하고, '점심 먹었어?' 안부를 묻고, '편안한 밤!' 하고 헤어진다.

그러나 갑자기 빛이 사라진다면? 마치 원래부터 빛이 없었다는 듯, 시간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간다. 서로의 일과와 안부가 어긋나기 시작한다. 이제 당신과 나는 어떤 인사를 건네게 될까?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맞잡고 새로운 안부를 물을 수 있을까?

The gray of dawn, high sun of noon, sunset glow and darkness. Light and time seem as one. Both move precisely and without fail. You and I greet each other the same way each day, saying "Good morning," "Have you had lunch yet?" and part ways, saying, "Have a good night." But what if light disappears all of a sudden? What if time continued to pass as though light had never existed at all? Our routines and greetings will begin to disconnect. What would we say to each other when we meet then? Would we be able to navigate through the dark to shake each other's hand and ask after each other's wellbeing through a new expression?



'코끼리들이 웃는다'는 커뮤니티와 장소특정형 공연형식의 작업을 기반으로 커뮤니티와 장소가 가진 이야기를 바탕으로 공연을 만든다.

Based on the 'Elephants Laugh' community and the work of a venue-specific type of performance, the performance is made based on the stories of the community and the venue.

코끼리들이 웃는다 ELEPHANTS LAUGH  
+82-(0)10-4592-6376 charlye337@hotmail.com

2019 창작지원 / Producing

##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것들

The Things We Ought to Commemorate

우리나라에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비와 추모시설 909개, 국가 수호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참전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한 설치물 1197개가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는 이같은 기념비와 탑과 동상을 통해 특정한 날을 지정하고 국가영웅의 공로와 업적을 떠올린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망각된 기억과 삭제되어버린 시대가 있다.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것들은 정가악회 단원 개개인의 기념행위에서 시작된다. 이 속에서 단원 개개인은 환희의 순간을 다시 만끽하거나 아픔의 기억을 위로하기 위한 노래를 부르고, 이를 통해 사소한 일상의 기념일부터 사회적으로 기념해야 하는 환희의 순간들을 다시 불러내 그 의미를 묻는다.

There are 909 monuments and memorial installations related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colonial-era Korea and 1,197 installations designated as memorials that commemorate events related to national defense and meritorious deeds of war veterans. We designate certain days as memorial days and install monuments and statues to remember the service and achievements of national heroes.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re are eras that were forgotten and erased from our memories. <The Things We Ought to Commemorate> begins with acts of celebration by individual members of 'Jeong Ga Ak Hoe'. They sing to relish moments of happiness or console painful memories and recall moments ranging from the minor celebrations of everyday life to moments commemorated across society, examining their significance.



'정가악회'는 2000년에 창단한 전문국악단체이다. 가곡과 줄풍류, 판소리, 민요 등의 장르를 음악적 자산으로 하며, 국악의 서양화(westernization)가 아닌 모범적인 현대화(modernization)의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Jeong Ga Ak Hoe' is a professional Korean classical music group founded in 2000. Specializing in various Korean musical genres including songs, julpungnyu(string ensemble), pansori and folk songs, the troupe strives to pursue an exemplary direction for modernization, rather than the simple Westernization of Korean music.

정가악회 Jeong Ga Ak Hoe  
+82-(0)10-8714-3686 jgah@jgah.co.kr

2019 창작지원 / Producing

## 풍정.각(風情.刻) 장안평

Reading in Poongjeong Gak Alley @Janganpyeong

도시공간무용프로젝트 풍정.각(風情.刻) 열한 번째는 1970년대 이래 중고차 매매와 자동차 부품 생산의 메카로 기능해 온 자동차산업의 거점도시 '장안평'에 주목한다. 시간이 누적된 도시의 장소에서 무용수들의 삶의 서사를 몸짓으로 중첩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가치, 도시개발과 재생 이슈로 변화하는 장안평의 모습을 장소특정적 퍼포먼스이자 산책형 공연으로 담아낸다.

Poongjeong Gak 11, a dance project set in the urban space, focuses on Janganpyeong, which has been a hub city of the automobile industry, as well as a center of used-car markets and automobile parts production. In urban spaces where time has accumulated, dancers layer the narratives of life using their body movements and embody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the area, in addition to changes in the landscape caused by issues of urban development and regeneration, in the form of space-specific performances as well as strolling performances.



'일일댄스프로젝트'는 2004년 무용가 송주원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동문중심의 현대무용단체에서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무브먼트 프로젝트 그룹으로 확장되었다.

'11 Dance Project' was founded by Joowon Song in 2004 and transitioned from an alumni-based modern dance company to a community movement project group consisting of artists from different genres.

일일댄스프로젝트 11 Dance Project  
+82-(0)10-4712-4997 11danceproject@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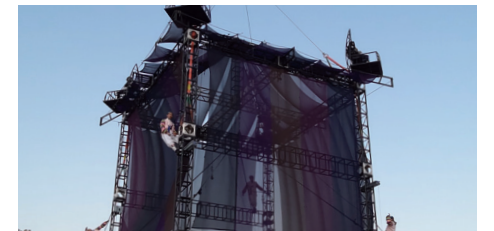
2019 창작지원 / Producing

## SKY 텐트

SKY Tent

텐트는 거리의 극장, 개릴라 극장이 되어 대중을 만난다. 텐트 지붕과 월은 우리네 전통 기와와 창호 등의 이미지를 지니 친근하면서 새롭다. 텐트지붕에는 연주자들이 앉아 음악을 만들고, 거리의 운율을 바꾼다. 하늘에서 내려온 텐스 속, 우리네 서커스 한마당이 펼쳐지며 모두가 즐거운 흥을 만다.

A tent becomes a theater on the street or a guerrilla theater that reaches out to the public. The top and sides of the tent resemble traditional Korean roof tiles, windows and doors, establishing an ambience that is both familiar and new at the same time. The performers sit on top of the tent and play music, changing the rhythm of the street. Inside the tent that descended from the sky, a circus is performed and everyone shares in the revelry.



'프로젝트 날다'는 공중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장르를 융합시키려는 예술 단체이다. 개발과 창작은 "공중퍼포먼스", "서커스", "공연기술", "전문 인력", "공간"에 집중한다. 2010년부터 국내외 유명 공연예술축제와 지역문화축제에 초청되었고, 2018년 평창 패럴림픽 개막식 문화공연에 출연하는 등 국내를 대표하는 공중 예술 단체로 성장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스파이더스>, <마법의 숲>, <빛, 날다>, <올바운스> 등이 있다.

'Project NALDA' is an arts group that fuses different genres, utilizing the space of the air. Its creation and development activities are focused on aerial performances, circuses, skills, experts and space. Nalda has been invited to well-known performing arts festivals and local cultural festivals at home and abroad since 2010 and appeared at the opening ceremony at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s, establishing itself as the premier air performance group representing Korea. Its previous work includes <Spiders>, <Magical Forest>, <Light, NALDA> and <All Bounce>.

프로젝트 날다 Project NALDA  
+82-(0)10-3175-2444 pro\_nalda@naver.com

2019 창작지원 / Producing

## 해녀

Haenyeo

그녀들의 삶과 죽음의 철학 그리고 생태계 보존의 원리를 강인한 아름다움의 핵심 요소로 재현하여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을 넘어 우리와 미래 세대가 수용해야 할 생명의 지혜로 풀다. 끝을 향해 달려가는 시침을 멈추고 제주 해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래된 미래로 만드는 것은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Recreating the philosophy on life and death held by haenyeo, or female divers, and the principle of ecological conservation as the core elements of a rugged sense of beauty, MOVIL talks about the wisdoms of life that should not only be preserved as a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but also be embraced by us and the future generations. Whether the race of time can be halted to elevate the beauty of haenyeo into a lasting future is our choice to make.



'모빌'은 에어리얼 서커스를 메인으로 공연 활동을 하는 서커스 아트 컴퍼니이다. 오브제의 적극적인 활용 콘틀선 액트와 사운드 아트 등과의 콜라베이션 작업을 통하여 깊이와 이유가 있는 움직임으로 관객과 소통하고자 한다.

'MOVIL' is a circus arts company specializing in aerial performances. By actively using objects and collaborating with other genres such as contortion acts and sound arts, MOVIL creates movements with depth and reason with the ultimate aim to communicate.

모빌 MOVIL  
+82-(0)10-9735-9101 skydance.kr@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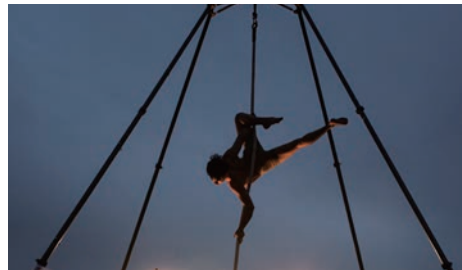
2019 창작지원 / Producing

## 우주고래

A lonely whale in the space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뒤에는 트라우마라는 흉터가 남기도 한다. 그것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각자 다른 스위치로 인해 계속해서 재생되어 우리를 괴롭힌다. 쉽게 공유할 수 없는 자신만의 고독하고 지독한 싸움 속에서 마치 우주 속에서 홀로 허우적거리는 외로운 고래 한 마리가 되어버린 것만 같다. 이 작품은 공중밧줄을 중심오브제로 사용하여 트라우마 속 개인과 삶의 의지를 표현한 자기고백적 작품이다.

Unbearable hardship sometimes leaves the scar of trauma. This scar does not stay in the past but continues to regenerate through different triggers and torments us. In a lonesome and tenacious battle with ourselves, we resemble a solitary whale floundering alone in outer space. Using aerial ropes as the central objet, A Lonely Whale in Space presents a self-confessional work that expresses a traumatized individual and the will to live.



'공연창작집단 사람'은 '예술은 개인의 것이다'라는 철학을 근본 삼아 창작을 하는 단체이다. 관객을 불특정 개인들의 순간 집합으로 바라보고 각 개인과의 밀접한 소통을 창작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 현재 서커스와 거리예술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며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진행, 계획 중에 있다.

'Creative group A Person;s' is a group that creates based on the philosophy, "Art is individual's."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create close communication with each individual and look at the audience as a momentary set of unspecified individuals. Currently, we are active mainly in circus and street art and is planning and working on collaboration with various fields.

공연창작집단 사람 A PERSON;S  
+82-(0)10-9368-1445 aperson\_s@naver.com

2019 창작지원 / Producing

## Waking the Witch

Waking the Witch

원래 'Waking the Witch'라는 말은 17세기 유럽의 마녀 재판에서 마녀로 지목된 여자로부터 자신이 마녀라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행해졌던 특별한 고문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가 'Waking the Witch'라는 말을 이번 창작 리서치의 제목으로 택한 이유는 이 말 속에 숨은 다른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즉 '우리 안에 있는 마녀, 체제를 전복시키는 원초적인 힘을 깨워라'라는 더욱 매력적인 의미를, 마녀는 어찌면 우리 사회가 소외시키고, 배제시키고, 억압해온 모든 아웃사이더들을 대신하는 말일지도 모른다.

Originally, the expression "waking the witch" meant a special torture method that was carried out in witch trials in order to force a confession from women suspected as witches in 17th-century Europe. However, the reason we decided to name our creative research "Waking the Witch" is that we found another meaning hidden in the expression. In fact, it carries a more attractive meaning: Waking the witch inside us, waking a raw power that can subvert the system.



'보이스씨어터 몸MOM소리'는 2008년에 보이스퍼포머이자 보이스테라피 강사인 김진영이 창당한 단체이다. 목소리는 가장 강력한 예술적 재료이면서 치유적 재료라는 의식으로 독창적 미학의 보이스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In 2008, 'Voice Theater Momsori' was established by Kim Jin-young, who doubled as a voice performer and therapist. Strongly believing in the power of voice as a potent artistic and therapeutic tool, the company has been introducing self-crafted, extraordinary voice performances.

보이스씨어터 몸MOM소리 MOMSORI  
+82-(0)10-7225-2777 jjjin323@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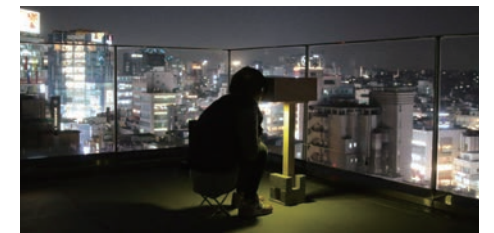
2019 창작지원 / Producing

## 비 오는 날이면, (파전이 생각나)

When it rains, (I feel like eating Jeon)

도달할 수 없는 무언가를 나열할 때 우리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회적으로 불가능한, 소멸되거나 감추어진, 잃어버리고 지워진, 잊히고 검열당한, 혹은 사회와 미디어에 의해 왜곡된 것들을 떠올렸다. 이를 탐색하고자 소리와 오브제를 주요 도구로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관객들이 그들만의 이야기를 조형하도록 설계했다. 어린 시절의 골목길, 사랑하는 이의 떠남, 고향을 잃은 이들, 새터민과 난민들까지, 주어진 이야기 장치들이 인물의 시간을 추측하게 한다. 기억은 실제와 다를 수 없겠지만 상실 이전의 시간을 다양한 감각으로 재현하는 것이 이 간극을 메운다.

When listing things that are unreachable, we came up with what was under the surface, socially impossible, extinct and hidden, lost and erased, forgotten and censored, or distorted by society and the media. In order to explore these concepts, we made a new space using sounds and objets, which was designed to help the audience shape their own stories. An alleyway from childhood memories, departure of loved ones, those who lost their home, and North Korean defectors and refugees: these given narrative devices allow the audience to speculate upon the past of these characters. Memories are never the same as reality, but the gaps therein are filled by reenacting the time before loss through various senses.



'프로젝트 다리'는 이야기와 이야기, 사람과 사람, 작업과 작업을 잇는 매개가 되고자 한다. 서로 만나지 못하던 것들이 이어지는 장으로서의 창작 실험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 예술이 스며들 수 있도록 돕는 기획자들의 그룹이다.

'PROJECT DARI' aims to be a medium bridging story to story, people to people, and projects to projects. This group of plan-makers is interested in creative experiments as a medium that connects things that previously had no point of contact, and helping the arts to permeate across society.

프로젝트 다리 PROJECT DARI  
+82-(0)10-3224-6294 myunzee@naver.com

2019 창작지원 / Circus Residency

## 아슬

A;seul

우리들은 그 불안정한 현실과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과 계속해서 맞선다. 그리고 끝내 균형을 찾기 시작한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서커스 예술과의 접점이다. 아슬아슬하게 흔들리며 선택한 그것이 결국 본인이 원하는 꿈에 다가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계속해서 펼쳐지는 불안정한 순간에서 멈추지 않고 현명한 선택과 균형을 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꿈꾸는 길을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We continue to face an unstable reality and the ideals of our dreams. And, finally, we start to find the balance, which is the point of contact with circus arts that we are currently performing. Making a choice despite wavering precariously is the first step toward our desired dreams, and only by dauntlessly finding wise choices and balance amid endless moments of uncertainty can we find the path of our dreams.



‘포스’는 신체 움직임을 비롯한 서커스, 무용, 무술 등 다양한 예술(art)과 인터랙티브아트(i.A),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c.T)의 다양한 디지털 아트 기술(technology)을 접목시킨 극(drama)의 창작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설립되었다.

‘FORCE’, founded in 2016, studies and creates dramas that combine different arts, including body movements, circus, dance, and martial arts, using various digital arts technologies including interactive art and creative technologies.

포스 FORCE  
+82-(0)10-3026-5205 master@force-artech.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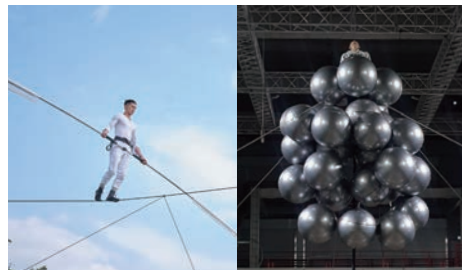
2019 창작지원 / Circus Residency

## 고공줄타기대작전/스러지다(가제)

Highwire-Project/To Fade(working title)

거리의 사람들과 줄타기를 앞둔 한 남자와의 우연한 마주침. 줄타기를 시작하면서 사람들과 남자 사이에 자연스럽게 긴장감, 두려움, 자유로움이 발생한다.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바라볼까? [스러지다] 돌아보면 매순간 스러졌다. 항상 가득 부풀려서 가장 높은 곳에 올리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그것은 모두가 사라졌다. 그것을 아쉬워하고 때론 부여잡으려고도 했지만 언제부턴가 사라질 것을 준비하는 내 모습을 보았다. 잘 스러지면 좋겠다 싶었다. 그렇게 2019년은 봉앤줄에게 스러지는 준비를 시작한 한해였다.

A chance encounter between people on the street and a man preparing to put on a tightrope performance. When he starts his act, senses of tension, fear and freedom emerge among people and the man. How would the people look at the man? [To Fade] Looking back, everything was fading at every moment. I always tried to inflate everything and elevate it to the highest place, but everything disappeared in the end. Missing the things that disappear, sometimes I tried to hold onto something, but at some point, I found myself preparing for its disappearance. I wish them to fade away well. The year of 2019 was when ‘BONG n JOULE’ began preparing to fade.



‘서커스창작집단 봉앤줄’은 2015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에서 진행된 서커스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서커스 기예인 봉(Chinese Pole)과 줄(Tight Wire)을 익힌 “인재현”에 의해 창단 되었다.

‘BONGnJOULE’ is a circus group found by Jaehyun Ahn who studied Chinese pole and tightrope skills and completed a professional circus artist training course at Seoul Street Arts Creation Center in 2015.

봉앤줄 BONGnJOULE  
+82-(0)10-9193-6259 bongnjoule@gmail.com

2018 창작지원 / Research

## 노숙 프로젝트 I - 꽃길에서 넘어지다

Homeless Project I - Falling on Flower Road

〈노숙 프로젝트〉는 노숙이 함의하는 유의미한 징후들을 연구, 리서치하여 공연미학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Homeless Project> is to study and research various significant signs of homelessness and materializing them as performance aesthetics.



‘비주얼씨어터 꽃’은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이 통합된 시각연극 Visual Theater를 추구하는 공연예술단체이다. 2000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The School of Visual Theater’에 재학 중이던 이철성에 의해 창단되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CCOT’ is a performing arts troupe that pursues a form of visual theater that integrates visual arts and performing arts. Founded in 2000 by Cheol-seong Lee, who studied at the School of Visual Theater in Jerusalem, Israel, ‘CCOT’ is an internationally active group.

비주얼씨어터 꽃 Visual Theater CCOT  
+82-(0)10-2396-1020 namunun@hanmail.net

2018 창작지원 / Research

## 서울탈춤

Seoul Talchum

지금 우리 사회의 이야기들과 광장이나 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과 함께 관객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는 ‘서울’을 고민하고 광장에서 동시대를 함께 하는 시민들을 만나고 ‘서울’을 중심으로 여러 기억, 욕망, 문제들을 풍자와 해학을 통해 함께 하고자 한다.

This project is to share the stories of our society and the public nature of our street and parks, with the spectators. In other words, it is to directly meet with the people of Seoul and communicate various problems, memories and desires through satire and humor.



‘극단 서울괴담’은 현대도시의 터무니없는 현상들을 괴담의 형식으로 재조명하여 현시대에 질문을 던지는 극단이다.

‘Seoul KEDAM’ is a theater company that spins absurd modern social issues as urban myth.

서울괴담 Seoul KEDAM  
+82-(0)10-4157-7093 yibong2@hanmail.net

2018 창작지원 / Research

## 풍정.각(風情.刻) 돈의문박물관마을

Reading in Poongjeong Gak Alley

일일댄스프로젝트는 리서치 기반의 도시공간무용 프로젝트 <풍정.각(風精.刻)>을 2013년 이후 서울 곳곳에서 진행해왔는데, 2019년 프로젝트는 '돈의문박물관마을' 주제이자 대상으로 삼고자 2018년 리서치 프로그램을 기획해 실행하고 댄스필름을 제작했다.

Since 2013, 11 Dance Project conducted <Reading in Poongjeong Gak Alley> here and there in Seoul, a research-based urban space dance project. For the 2019 project, the 2018 was planned and executed and a dance film was produced to make 'Donuimun, Open Creative Village' its theme



'일일댄스프로젝트'는 2004년 무용가 송주원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동문중심의 현대무용단체에서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무브먼트 프로젝트 그룹으로 확장되었다.

'11 Dance Project' was founded in 2004 by Juwon Song. Since then, what used to be a modern dance group comprised of dancers from the same school grew into a community movement project group with artists from various genres.

일일댄스프로젝트 11 Dance Project

+82-(0)10-4712-4997 11danceproject@gmail.com

2018 창작지원 / Research

##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것들

The Things We Ought to Commemorate

우리나라에는 등록된 2,106개 현충시설, 909개 독립운동시설, 1,197개의 국가수호 시설이 있다. 우리는 그 기념비석과 탑과 동상을 통해 그들의 공로와 업적을 떠올린다. 그러나 한 편으로 외압에 의해, 세력에 의해, 슬픔을 회피하기 위해, 먹고 살기 바쁜 일상 때문에 잊었던 기억을 끌어내고자 한다.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것들>은 정가악회 단원들 개개인의 기념에서 시작한다. 나의 생에서 중요한, 아꼈던 기억을 그리고 위로가 되는 노래를 관객들과 나눈다. 그리고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왜 기념하는 것일까'  
'우리는 왜 추모하는 것일까'  
'우리는 왜 기억하려는 것일까'

Korea has 2,106 registered Memorial facilities, 909 independence movement facilities, and 1,197 national protection facilities. We recall their achievements and achievements through the monument, tower, and statue. However, by external pressure, by force, to avoid sadness, We want to bring out memories that I forgot because of our busy daily life. "The Things We Ought to Commemorate" begins with the commemoration of each member of the Jeong Ga Ak Hoe. We share important, painful memories in my life and comforting songs with the audience. And ask questions to the audience.

"Why are we celebrating?"  
"Why are we commemorating?"  
"Why do we want to remember?"



'정가악회'는 2000년에 창단한 전문국악단체이다. 가곡과 줄풍류, 판소리, 민요 등의 장르를 음악적 자산으로 하며, 국악의 서양화가 아닌 모범적인 현대화의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Jeong Ga Ak Hoe' is an expert gukak group founded in 2000. They have set gagok, julpungryu, pansori and folk music as their musical asset and are making efforts to not westernize but modernize our music.

정가악회 Jeong Ga Ak Hoe

+82-(0)10-4102-9749 jgah@jgah.co.kr

2018 창작지원 / Research

## 구십육퍼센트

NINETY-SIX PERCENTAGE

우리가 자신의 몸을 보는 관점이 우리가 세계에 참여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우리가 우리들의 몸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은 곧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아주 근본적인 토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The way we perceive our body determines how we participate in the world. If we can accept our bodies as they are, it can be the very basis of accepting our differences.



'제너럴 쿤스트'는 2010년 베를린에서 시작되어 2011년부터 국내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단체이다.

'General Kunst' began in 2010 in Berlin and took on various art projects with numerous experts in Korea since 2011.

제너럴 쿤스트 General Kunst

+82-(0)10-2675-0504 generalkunst@gmail.com

2018 창작지원 / Research

## 어둠 속 환타지

Fantasy in the Dark

거리예술의 관객 확장: 시각장애인과와의 만남. 이번 작업을 통해 결과물이 아닌 과정 중심의 작업으로 다양한 시형착오를 통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거리공연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자 한다.

Street Art Spectator Expansion: Encounter with person with visual impairment. I plan to make various attempts to make a street performance that can be experienced by both people with and without visual impairment.



'코끼리들이 웃는다'는 커뮤니티와 장소특정형 공연형식의 작업을 기반으로 커뮤니티와 장소가 가진 이야기를 바탕으로 공연을 만든다.

'The Elephants Laugh' is a creative performing arts group for making performances based on the stories of a community and a space.

코끼리들이 웃는다 Elephants Laugh

+82-(0)10-4592-6376 charlye337@hotmail.com

2018 창작지원 / Research

## 미스트; 축축함에 대하여

Mist; About Moistness

우리가 모르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세상의 삭막함과 메마름을 해소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들만의 방식으로 잘 풀어내고 표현되어 이 창작물에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We hope to unentangle and express the ways that can remedy and resolve the desolateness that we all very well know in this production.



‘크리에이티브 라이프닥터’는 고정된 시각과 남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실험적인 작품창작을 지향한다.

‘Creative Life Doctor’ is not bound by the rules of others. We are experimental. We are artistic

크리에이티브 라이프닥터 Creative Life Doctor  
+82-(0)10-3176-5763 creativegroup.lifedocto@gmail.com

2018 창작지원 / Research

## 과거의 거리 미래의 거리

Past Street, Future Street

거리가 연극무대라면, 구호는 민중들의 대사다. <과거의 거리, 미래의 거리>는 한국의 과거에서부터 미래의 거리에 대한 의미와 역사, 사회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If the street is our stage, slogan is the words of the people. <Past Street, Future Street> strives to study the history and sociology of our past and future streets.



‘홍부양’은 2017년 설립된 신생 단체로 불어로 ‘회전로터리’를 뜻한다. 거리예술 전문 기획사로 거리예술분야의 연구, 기획, 제작 등 거리예술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Meaning a round about in French, ‘Rond-point’ is a new street art agency founded in 2017. It handles various street art businesses from research, planning and production.

홍부양 Rond-point  
+82-(0)10-2087-9143 rond-point@hanmail.net

2018 창작지원 / Research

## 나는 왕따였다

I was Bullied

우리가 자신의 몸을 보는 관점이 우리가 세계에 참여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우리가 우리들의 몸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은 곧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아주 근본적인 토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The way we perceive our body determines how we participate in the world. If we can accept our bodies as they are, it can be the very basis of accepting our differences.



‘공연창작집단 사람’은 ‘예술은 개인의 것이다’라는 철학을 근본 삼아 창작을 하는 단체이다. 관객을 불특정 개인들의 순간 집합으로 바라보고 각 개인과의 밀접한 소통을 창작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 현재 서커스와 거리예술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며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진행, 계획 중에 있다.

‘Creative group A Person;s’ is a group that creates based on the philosophy, “Art is individual’s.”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create close communication with each individual and look at the audience as a momentary set of unspecified individuals. Currently, we are active mainly in circus and street art and is planning and working on collaboration with various fields.

공연창작집단 사람 A PERSON;S  
+82-(0)10-9368-1445 aperson\_s@naver.com

2018 창작지원 / Producing

## 해운대구 중1동 1258번지

1258, Jung 1-dong, Haeundae-gu

나는 지금 누구와 무엇을 이야기 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삶인가? 나와 내가, 그들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바라보고 의논하며 살아가야 하는 실제 세상과, 이제 떼어놓고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SNS 세상 속에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에서부터 이 작품은 시작된다.

What am I talking about with who and how am I living? This work begin by asking the questions: ‘Is this really a life with communication? How can we ‘truly communicate’ in the real world where you and I or you and we have to discuss in person and in a world where people cannot live without SNS?’



‘프로젝트 외’는 ‘왜, 극장공간이 아닌 외부공간에서 작업하는가? (Why And Exterior)’라는 의문과 답안을 늘 상기하며 작업할 것을 기본 모티브로 2010년 젊은 배우들과 무용수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이다

‘Project WAE’ is a project group founded in 2010 comprised of young actors and dancers with the motif of asking the question of ‘why work outside and not in the theater?’

프로젝트 외 Project WAE  
+82-(0)10-5779-5707 any5707@hanmail.net

2018 창작지원 / Producing

## 2018 Sound Tour

2018 Sound Tour

‘2018 Sound Tour’는 일시적 방문객인 관객들이 돈의문 박물관마을이라는 과거의 도시개발과 현재의 도시재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에서 하루 동안 펼쳐지는 듣기를 위한 탐색과정이다

‘2018 Sound Tour’ is a listening and searching process for spectators at the Donuimun Village that symbolically displays the urban regeneration of the past and now for the day



‘하울링’은 2013년에 설립된 사운드/음악분야 예술가들로 구성된 단체이며, 국내 비주류인 장르의 활성화와 관심 있는 예술가 네트워크에 조그만 힘을 보태고 있다.

Founded in 2013, ‘Howling’ is a group consisting of artists in the field of sound/music. Their efforts are helping to vitalize nonmainstream art genres and art networks.

하울링 HOWLING  
+82-(0)10-3013-2315 morogadobae@gmail.com

2018 창작지원 / Producing

## 낙화

Falling Blossom

〈낙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창작자들이 옴니버스식 구성을 통해 ‘낙화’라는 주제를 통해 각자만의 예술로 표현하는 기획공연이며, 5가지 다른 작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Falling Blossom〉 is a planned omnibus performance produced by numerous young artists in various fields. It is comprised of 5 separate works



‘프로젝트 루미너리’는 에어리얼 아트와 무용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배우의 새로운 신체움직임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동시대의 관객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공연예술단체이다.

‘Project Luminary’ is a performance art group that discovers new bodily movements and possibilities based on aerial art and movement, and through them, endeavors to communicate with its spectators in various ways.

프로젝트 루미너리 Project Luminary  
+82-(0)10-2785-9458 projectluminary@gmail.com

2018 창작지원 / Producing

## 수직

Verticality

〈수직〉은 사회의 수직구조 속에서 중력(구조)을 거스르는 용기 있는 신입사원 이야기이다.

‘verticality’ is a story about a fearless new employee who confronts the vertical hierarchical structure of our society.



‘포스(FORCE)’는 곡예를 비롯한 무용, 무술, 서커스 등 다양한 예술(art)과 미디어, 디지털아트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시킨 극을 시대에 맞게 융합 창작하여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FORCE’ was founded to continually research, develop and demonstrate new contents by converging various arts such as acrobatics, dancing, martial arts, and circus and various technologies such as media and digital art.

포스 FORCE  
+82-(0)10-3026-5205 master@force-artech.com

2017 창작지원 / Producing

## 망각댄스〈세월호 편〉

Dance of Remembrance <Sewol Ferry Disaster>

망각 보이콧!? 깨어나라, 시민이여! 〈망각댄스 세월호편〉은 반복되는, 잘못된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 날카로운 경고를 던지고자 한다.

Never forget! Wake up, Korea! <Dance of Remembrance Sewol Ferry Disaster> play an acrid caveat to Korea on its history of recurring injustice.



‘극단 신세계’는 새로운 세계, 믿을 수 있는 세계를 만나고 싶은 젊은 예술가들의 모임이다. 이 시대가 불편해하는 진실들을 공연을 통해 자유롭게 하고자 한다.

‘Drama New World’ is a company of young artists in search of a new and honest world. It sheds light on truths shunned by the public through performances.

극단 신세계 Drama New World  
+82-(0)10-8484-0534 newworld\_s@naver.com

2017 창작지원 / Producing

## 선동백서

The White Book of Propaganda

사회와 타인으로부터 고립되기 쉬운 삶 속에서 우리는 왜 이토록 격양되었는지 잇는다. 어쩌면 누군가가 자신을 선동해 주기를 바라며 선동당하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In today's world, where social isolation is commonplace, we find ourselves desensitized but filled with pointless resentment. Maybe ones secretly wish and are waiting for somebody to manipulate them.



'몸꼴'은 창작집단 '극단 몸꼴'과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몸꼴 상상력 훈련소', 문화예술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문화이름이 꼴'을 산하로 두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Momggol' is engaged in a variety of endeavors through Momggol the Dance Company, Momggol Imagination training Center, a link between people and locales, and Ggol the Cultural Compass, a culture and art production house.

극단 몸꼴 Momggol  
+82-(0)10-8448-7061 momggol@gmail.com

2017 창작지원 / Producing

## 용도변경2017\_용산기지 Gate 22 오케스트라 땅의 노래 연주

Change of Purpose 2017\_Yongsan Military Base Gate 22  
Orchestra Variation of The Land

서울의 한복판 외래군의 영토로 사용되어 온 식민과 냉전의 상흔이 '무단침입금지'라는 경고문을 통해 은폐되던 100만 평의 땅의 귀환에 주목한다.

The middle of Seoul that had been claimed by foreign military forces for over a century, fraught with scars from the years of colonization and the Cold War, once sealed off with a stern warning, has returned to its rightful owners.



'노노앤소소'는 공간, 예술, 사람의 역학관계,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예술의 역할, 개입의 방식과 그 결과로 공공성을 담보해 나가는 과정에 주목하며 예술의 대안적 모습을 탐색한다. 전시 공연 거리예술 외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실행 중이다.

Recognizing the dynamics between space, the arts and people, and the role and intervention of art in public places, with the resultant publicness 'Nono & Soso' explores alternative art to introduce, not only street performances, but other types of projects as well.

노노앤소소 Nono & Soso  
+82-(0)10-3915-6048 nonososo@daum.net

2017 창작지원 / Producing

## 풍정.각(風精.刻)\_청파동 골목 낭독회

Reading in Poongjeong Gak Alley\_Cheong-Pa Dong

〈풍정.각\_골목 낭독회〉는 '골목'이라는 창을 통해 도시인의 삶 속에서 잊혀지고 있는 정서와 도시의 풍경을 그린다.

This play is against the backdrop of an alley way, sentiments forgotten in the urban life and a nostalgia surrounding alleyways.



'일일댄스프로젝트'는 2004년 무용가 송주원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동문중심의 현대무용단체에서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무브먼트 프로젝트 그룹으로 확장되었다.

Dancer Joo-won Song founded '11Dance Project' in 2004 and since expanded the initially contemporary dance company into a multi-genre community movement project group.

일일댄스프로젝트 11 Dance Project  
+82-(0)10-4712-4997 11danceproject@gmail.com

2017 창작지원 / Producing

## 4.9m<sup>2</sup>

4.9m<sup>2</sup>

〈4.9m<sup>2</sup>〉는 고시원의 대략적 크기이다. 안정된 삶과 꿈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하는 이 시대의 현실을 이 작품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A goshiwon room is about 4.9m<sup>2</sup> in size. This piece symbolizes the reality of this age, in which many must give up for a stable life and a dream.



'창작집단 숨비'는 실험적 시도, 탈경계, 예술 공유 네트워크를 목표로, 공연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감각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예술창작 작업을 시도하는 단체이다.

'Creative Group SUM BI' is a group that attempts various artistic creation works to form new synesthesia as well as performances, aiming at experimental trials, borderlessness, and networks that shares art.

창작집단 숨비 Creative Group SUM BI  
+82-(0)10-3511-1728 so4860@hanmail.net

2017 창작지원 / Producing

## 불의 노래\_프롤로그

Song of Fire\_Prologue

〈불의 노래〉는 아직까지 이어져오는 재래식 대장간을 배경으로 꺼지지 않는 용광로와 함께 끊임없는 담금질, 매질의 노동을 일삼는 대장장이의 모습을 담는다.

With the traditional smithy as the background, the work life of a blacksmith, comprising working the furnace and incessant cooling and beating of metal is played out.



‘예술불꽃 화(花,火)랑’은 불과 불꽃이 가지는 무수한 상징성을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다양하게 창작하고자 새로운 형식의 불꽃공연을 통해 불꽃이 하나의 공연예술장르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HWARANG Art pyrotechnics’ tried to create various works that introduces countless symbolism of fire and flame. They are striving to make new forms of flame performance as their purpose is making people see the true value of flame as a performance art genre

예술불꽃 화(花,火)랑 HWARANG Art Pyrotechnics  
+82-(0)10-9991-9431 pyrokwak@gmail.com

2017 창작지원 / Producing

## 몽환의 숲

Fantasy Forest

회사에 적응 못하는 신입사원, 그의 백수 친구와 함께 기분전환을 위해 산행을 떠난다. 그곳에서 뜻 밖의 무리들을 만나 겪게 되는 신비롭고 다이내믹한 일들이 펼쳐진다.

A circus band creates a small world with a chair and desk in which the happiness, anger, sadness, and joy of the modern people are expressed to form a sense of unity and deliver laughter and solace.



‘퍼포먼스팩토리’는 인간 신체 그 자체의 순수한 가능성으로부터 구현되는 서커스와 아크로바틱을 기반으로, 신체의 리듬을 묘사하고 또 그것이 단순한 묘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이미지로 구현되어 관객과의 호흡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Circus acts and acrobatics, expression of the possibilities of the human body, are at the base of ‘Performance Factory’s performances, which do not stop at mere expression of the rhythm of the body and bodily feats, but emits an artistic image that breathes together with the audience.

퍼포먼스팩토리 Performance Factory  
+82-(0)10-2354-4728 jh4728@naver.com

2017 창작지원 / Producing

## 체어, 테이블, 체어

Chair, Table, Chair

서커스 밴드가 들려주는 의자와 책상 앞 작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인의 희노애락을 표현하여 이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시에 웃음과 위로를 전달한다.

A circus band creates a small world with a chair and desk in which the happiness, anger, sadness, and joy of the modern people are expressed to form a sense of unity and deliver laughter and solace.



‘팀퍼니스트’는 ‘가장 즐거운, 가장 재미있는’이라는 의미와 관객에게 ‘가장 재미있는 사람들, 즐거움을 불러오는 사람들’이란 의미를 포함하여 항상 관객과 함께하며, 관객의 웃음을 책임지겠다는 약속과 함께 만들어진 이름이다.

‘Team Funniest’ was named so as the group’s pledge to be bring joy and laughter to its audiences.

팀퍼니스트 Team Funniest  
+82-(0)10-2078-4253 kinggo@hanmail.net

2017 창작지원 / Producing

## 칼의 시대

Age of the Sword

‘칼의 시대’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 분열을 초래하는 사회적 상황을 트램폴린, 검술과 무용, 서커스 움직임 등을 통해 칼을 든 현대인들의 삶으로 표현한다.

“The Age of the Sword” describes the age of conflict and conflict, and the social situation that leads to division as a life of modern people with swords through trampoline, sword and dance, and circus moves.



‘프로젝트 날다’는 공중에서의 이미지/움직임을 기본으로 버티컬 퍼포먼스, 크레인을 이용한 대형 공중 퍼포먼스 등 융복합적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Project NALDA’ presents extraordinary shows that of fer unique experiences in vertical performance, crane based.

프로젝트 날다 Project NALDA  
+82-(0)10-3175-2444 pro\_nalda@naver.com

2016 창작지원 / Producing

## 고물수레

Grandma's Cart

<고물수레>는 폐지 줍는 할머니의 모습을 배우가 아닌 인형으로 그려내는 소박하고도 마음 따뜻해지는 공연으로, 관객들과 할머니의 만남은 차가운 도심 속에서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낸다.

<Grandma's Cart> uses a puppet to present an ordinary but poignant story of an old woman who collects waste paper. Meeting People and She are creating a new landscape amidst the cold night of a city.



세상은 날 광대라 하고, 난 세상을 무대라 한다! '마린보이'는 서커스 기반의 광대로, 저글링과 코메디, 마임과 서커스 스킵 등이 결합된 공연을 선보인다.

Call me a clown and all the world's a stage! 'Marineboy' is a clown who offers unique experiences in juggling, comedy, mime and circus.

마린보이 MarineBoy  
+82-(0)10-9186-0045 juggling114@naver.com

2016 창작지원 / Producing

## 나들이

Picnic

<나들이>는 어느 한 할머니의 저승 가는 길을 한국적인 색을 입혀 유쾌하게 풀어낸 작품이다.

<Picnic> is the tale of an old lady/s journey into the afterlife. It tells a rather dark but enthralling story combined with Korean culture.



'노마딕 시어터'는 배우의 몸, 짓, 소리의 탐구와 오브제 연기의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우리의 여정에서 만난 사람들의 삶에 유쾌한 경험을 선사하며, 그들의 삶이 보다 가치 있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공연 창작 집단이다.

'The Nomadic Theater' is consistently devoted to studying a performer's body, gestures, sounds and object performance, the theater offers a unique experience to people, with the hope that they will find more value and happiness in their lives.

노마딕 시어터 Nomadic Theatre  
+82-(0)10-2790-5742 fubu4740@naver.com

2016 창작지원 / Producing

## 낯선자들의 거리

The Strangers' Street

네 명의 인물들, 네 갈래의 길. 남대문 한복판의 주인 없는 집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이다.

Four People and Four Different Journeys. The story begins in an abandoned house in the center of Namdaemun.



'낯선자들'은 시각, 소리, 신체극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업을 통해 거리극의 장르적 범주를 확대하고, 장소와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하고 이용하는 방법적 실험과 관객에 접근하고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하는 단체이다.

'The Strangers' actively seeks, through collaboration with visual, audio, and movement artists, to expand the boundaries of street performance. By doing so, it wants to deliver a new interpretation of existing venues and stories, to better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낯선자들 The Strangers  
+82-(0)10-7259-8075 strangers.lab@gmail.com

2016 창작지원 / Producing

## 마사지사

Massager

종이처럼 부서지기 쉬운 당신, 당신을 안아주는 시간! 시민참여형으로, 참여한 모두가 인간의 나약함을 안아주고 그 의미를 되새겨본다.

Fragile Like paper. It's time to hold you in my arts! The participants wi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and reflect on human fragility.



'비주얼씨어터 꽃'은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이 통합된 시각연극 Visual Theater를 추구하는 공연예술단체이다. 2000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The School of Visual Theater'에 재학 중이던 이철성에 의해 창단되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CCOT' is a performing arts troupe that pursues a form of visual theater that integrates visual arts and performing arts. Founded in 2000 by Cheol-seong Lee, who studied at the School of Visual Theater in Jerusalem, Israel, 'CCOT' is an internationally active group.

비주얼씨어터 꽃 CCOT  
+82-(0)10-2396-1020 namunun@hanmail.net

2016 창작지원 / Producing

**물질**  
MULJIL

〈물질〉은 거대 도시 서울에 투영된 사람들의 일상을 한발짝 떨어져 비춰보는 이동형 공연이다.

<MULJIL> is an outdoor art performance which allows the audience to take a step back and think about their ordinary lives in the city.



‘코끼리들이 웃는다’는 커뮤니티와 장소특정형 공연형식의 작업을 기반으로 커뮤니티와 장소가 가진 이야기를 바탕으로 공연을 만든다.

‘The Elephants Laugh’ is a creative performing arts group for making performances based on the stories of a community and a space.

코끼리들이 웃는다 ELEPHANTS LAUGH  
+82-(0)10-4592-6376 charlye337@hotmail.com

2016 창작지원 / Producing

**링더벨**  
RING THE BELL

잊혔던, 잊히고 있는, 잊힐 수도 있는, 그 때, 그 곳에, 당신을 기억하는 이야기. 벨이 울리면, 현실 속 비현실, 비현실 속 현실이 뒤섞인 차원의 이동이 시작된다.

Forgotten, being forgotten, will be forgotten. A story of you at a certain place and time. When a bell rings, the audience is enchanted by things that are both real and surreal.



‘조성아’는 장르의 경계 없는 표현 방식에 방향성을 두고 작업 하며 다양한 장소를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공간으로 확장해 나가며 창작 작업을 하는 거리예술단체다.

‘Cho Sung-ah’ is a street art company that pursues borderless art expression across the genre and transforms various spaces into spaces with a new potential.

조성아 Cho Sung-ah  
+82-(0)10-4674-7901 rosalieblum@naver.com

2016 창작지원 / Producing

**인왕산 호랑이 바위**  
Tiger stone in Inwangsan

한국의 정서가 담긴 동화 이야기를 다양한 오브제들의 사용으로 시작부터 불특정 관객들의 시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거리연극이다.

This street performance uses various objects to interpret fairy tales with which most Korean people would be familiar.



‘극단 하땅세’는 1998년 각기 다른 예술적 배경을 가진 스페인과 브라질 국적의 멤버들이 결성하였다. 고전 줄 인형극으로 시작한 그들은 점차 신체 손, 발, 팔에서 얼굴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신체를 다양하게 이용하게 된다. 음악, 시, 유머를 가미한 이들의 공연은 다양한 전 연령대 관객을 대상으로 한다.

‘haddangse’ is from Spain and Brazil founded this company in 1998. Starting as a marionette performance, they have used various body parts such as hands, feet, arms and face. Devoted to productions suitable for all ages, they blend music, poetry, and humor.

극단 하땅세 haddangse  
+82-(0)10-1600-8534 haddangse@hanmail.net

2016 창작지원 / Producing

**컨템포러리 서커스 봉앤줄**  
Contemporary Circus BONGNJOLE

봉(Chinese Pole)과 줄(Tight Wire)을 익힌 서커스 기예 공연자 3명이 연극, 무용, 음악, 시각 장르의 연출과 함께 한자리에 선보이는 공연이다.

Three Chinese pole and tight wire artists present a tetralogy of performances that blend theater with dancing, music and visual arts, with performances.



‘서커스 창작집단 봉앤줄’은 2016년에 창단되었고, 화려해 보이는 서커스 기예 이면에 인간의 나약한 주목에 주목하고, 다른 예술 장르와 결합을 통한 동시대 서커스 창작을 목표로 한다.

In 2016 founded ‘BONGnJOLE’. The company is devoted to the presentation of high quality, self-crafted performances that artfully fuse human weakness with breath-taking stunts and other performing arts.

봉앤줄 BONGnJOLE  
+82-(0)10-9193-6259 bongnjoule@gmail.com

2016 창작지원 / Producing

## 스파이더스

SPIDERS

WEB in the CITY/CITY in the WEB

점점 생각하지 않고 감정을 만들 필요도 없는 단순한 기계와 닮아가는 인간 생애를 거미들에 비유해 퍼포먼스로 완성한다.

Our continuously-connected lives are more or less like a machine that does not need to think or feel. They uses spiders to represent people interconnected on the web.



‘프로젝트 날다’는 공중에서의 이미지/움직임을 기본으로 한 버티컬 퍼포먼스, 크레인을 이용한 대형 공중 퍼포먼스 등 융 복합적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Project NALDA’ presents extraordinary shows that offer unique experiences in vertical performance, crane based.

프로젝트 날다 Project NALDA  
+82-(0)10-3175-2444 pro\_nalda@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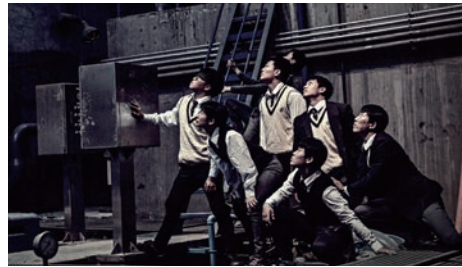
2015 창작지원 / Producing

## 기억하는 사물들

Things that Remember 2015

공간의 기억을 압축하여 이야기를 품고 있는 사물들. 관객들은 공간을 탐색하며 사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스스로 구성해나간다.

Objects represent the stories of a certain space. This space leads the audience to create stories by enabling them to listen to the voices of objects.



‘창작그룹 노니’는 전통연희, 미술, 음악 세 유닛을 중심으로 소규모 연구와 창작을 실험, 확장하여 다양한 창작작업을 하고 있다.

‘Creative NONI’ is devoted to presentations of experimental self-created productions that blend with traditional performing arts, painting, and music.

창작그룹 노니 Creative Group NONI  
+82-(0)10-7011-7532 creative.group.noni@gmail.com

2015 창작지원 / Producing

## 닥터랄랄라의 이상한 병원

Dr. Lalala's Strange Hospital

괴상한 코미디와 신나는 음악, 그로테스크한 키네틱오브제물로 꾸며지는 수상한 의사와 간호사의 요절복통 메디컬 뮤직쇼!

The funny tale of a suspicious doctor and a nurse unfolds with the combination of ridiculous comedy, joyful music and grotesque kinetic objects!



‘음악당달다’는 음악감독으로 다양한 공연단체들과 협업을 지속해온 이정훈, 연리목이 본격적인 음악퍼포먼스를 만들기 위해 의기투합한 극단이다. 작품으로는 <랄랄라쇼>, <닥터랄랄라의 이상한 병원>이 있다.

‘Umdalda’, by musical directors Lee Jung-hoon and Yeon Rimok, has actively sought collaboration with various performing artists to produce high-quality music performances. Its productions include ‘Lalala Show’ and ‘Dr. Lalala’s Strange Hospital’.

음악당달다 UMDALDA  
+82-(0)10-3241-8881 umdalda@gmail.com

2015 창작지원 / Producing

## 도시소리동굴 프로젝트

Voice Caves in the City

도시 곳곳의 서로 다른 공명을 품고 있는 공간들을 찾아 이동하는 장소특정형 보이스즉흥공연. 전자음이 가득한 도시 속에서 육성의 섬세한 울림과 그 힘을 느끼게 하는 이 공연은 마지막에 관객과 함께 하는 소리제의를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원초성을 회복하려 한다.

‘Voice Caves in the City’ is a site-specific, improvised voice performance in spaces with various resonance. It offers a splendid experience to the audience through the powerful echo of voices as opposed to electronically-generated sound. The performance is joined by the audience at the end, leading them to reflect the loss of primitiveness.



‘보이스씨어터 몸MOM소리’는 2008년에 보이스퍼포머이자 보이스테라피 강사인 김진영이 창단한 단체이다. 목소리는 가장 강력한 예술적 재료가면서 치유적 재료라는 의식으로 독창적 미학의 보이스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In 2008, ‘Voice Theater Momson’ was established by Kim Jin-young, who doubled as a voice performer and therapist. Strongly believing in the power of voice as a potent artistic and therapeutic tool, the company has been introducing self-crafted, extraordinary voice performances.

보이스씨어터 몸MOM소리 MOMSORI  
+82-(0)10-7225-2777 jijin323@hanmail.net

2015 창작지원 / Producing

##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거리

Another People, Another Street

150년이 넘는 고려인 이주역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고려인의 모습과 애환을 거리무용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The 150-year history of the Kareisky, ethnic Koreans in the former Soviet Union, and their lives in Korea, unfolds through poignant street performances.



‘모다트’는 한국적이면서 현대적인 몸짓을 찾아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을 하고있다.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협업을 해나가면서 장르의 파기가 아닌 장르의 융합을 통해서 음악과 몸, 오브제의 만남을 통해 작품을 만들어 가는 단체이다.

‘Modart’ traces the history of Korean and modern movements. In partnership with various artists, the company, also known as ‘Modart-Modern Art’, pursues not destruction, but the fusing of various performing arts to present productions that blend music, body and objects.

모다트 Modart  
+82-(0)10-9925-8002 modartkorea@gmail.com

2015 창작지원 / Producing

## 멀리 있는 무덤

A Grave Faraway

갈 곳 잃은 절망 속 행위 하지 못하는 행렬, 그리고 그들을 막아서는 바람의 이야기를 깊이 있는 고찰과 새로운 무대 언어로 표현한다.

‘A Grave Far Away’ tells the tale of a parade of people who fall into despair and wind standing in their way. Based on serious interpretations and creative stage language.



‘극단 몸골’은 창작집단 ‘극단 몸골’과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몸골 상상력 훈련소’, 문화예술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문화이꿈이 꼴’을 산하로 두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Momggol’ is engaged in a variety of endeavors through Momggol the Dance Company, Momggol Imagination training Center, a link between people and locales, and Ggol the Cultural Compass, a culture and art production house.

극단 몸골 Theatre Momggol  
+82-(0)10-8448-7061 momggol@gmail.com

2015 창작지원 / Producing

## 숨비- 물의 경계

SUMBI - Border of Water

3m높이의 물기둥 안의 수중움직임을 통해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시각적 호흡과 물기둥 밖 열린 공간에서 대금의 라이브 연주가 만들어 내는 청각적 호흡이 어우러진 공감각적 이미지 음악 퍼포먼스이다.

‘Border of Water’ is a multisensory-image music performance that offers unique experiences in underwater movement inside a 3-meter water column, with the live music of a bamboo transverse flute, showcasing three-dimensional visuals with auditory breathing.



‘창작집단 숨비’는 실험적 시도, 탈경계, 예술 공유 네트워크를 목표로, 공연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감각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예술창작 작업을 시도하는 단체이다.

‘Creative Group SUM BI’ is a group that attempts various artistic creation works to form new synesthesia as well as performances, aiming at experimental trials, borderlessness, and networks that shares art.

창작집단 숨비 Creative Group SUM BI  
+82-(0)10-3511-1728 so4860@hanmail.net

2015 창작지원 / Producing

## 길 & PASSAGE

GUILLE & PASSAGE

〈길&Passage〉는 삶에 담긴 수많은 여정을 이동형 불꽃극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프랑스 Karnavires와 공동창작/협연하였다. (2016안산,수원,고양,Sotheville)

‘Passage’, co-produced and accompanied by Cie Karnavires in France, is a pyro-theatre de rue that tells the tale of various life journeys. (Sotheville 2016 in Ansan, Suwon, Goyang)



‘예술불꽃 화(花,火)랑’은 불과 불꽃이 가지는 무수한 상징성을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다양하게 창작하고자 새로운 형식의 불꽃공연을 통해 불꽃이 하나의 공연예술장르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HWARANG Art pyrotechnics’ tried to create various works that introduces countless symbolism of fire and flame. They are striving to make new forms of flame performance as their purpose is making people see the true value of flame as a performance art genre

예술불꽃 화(花,火)랑&까르나비흐 HWARANG Art Pyrotechnics&Cie karnavires  
+82-(0)10-5536-9315 pyrokwak@gmail.com

2015 창작지원 / Producing

## 내 땅의 땀으로부터

From the Sweat Of My Land

땅을 발판으로 노동을 일구며 삶을 영위해온 이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정신과 가치가 살아 숨쉬는 농업의 리얼리티를 소재로 하고 있다.

The story is dedicated to people who lives by working on land and has Korea's traditional soul and value breathing within it.



‘올웨이즈 어웨이크’는 공연기획자이자, 프로모터로 활동한 김연정 대표가 이끄는 팀으로, 해외투어매니저로 활약한 경험을 살려 한-프 합작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철의 대성당> 과 <내 땅의 땀으로부터>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향후 한국과 해외와의 문화 교류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Always Awake’ is a performing arts group led by Kim Yeon-jung, an event organizer and promoter. She has successfully launched joint Korea-France projects such as ‘Cathedrale d’Arcier’ and ‘From the Sweat of My Land’, and plans to present more projects for cultural exchange with other foreign countries.

올웨이즈 어웨이크&오스모시스 Always Awake & Osmosis  
+82-(0)10-9495-7177 olivia8232@gmail.com

2015 창작지원 / Producing

## 역:STATION:驛

Station

파쿠르, 전통연희, 무술, 서커스로 훈련된 신체들이 도시 공간과 뒤섞이고 놓여지며 만들어내는 기억의 풍경들을 보여 준다.

The Scene of memory made by the mixture an laying of bodies trained with Parkour, traditional theatrical performance, martial arts and circus with the city.



‘창작그룹 노니’는 전통연희, 미술, 음악 세 유닛을 중심으로 소규모 연구와 창작을 실험, 확장하여 다양한 창작작업을 하고 있다.

‘Creative Group NONI’ is devoted to presentations of experimental self-crated productions that blend with traditional performing arts, painting, and music.

창작그룹 노니&프랑스 서커스 아티스트 Creative Group NONI & France circus artists  
+82-(0)70-7011-7532 creative.group.noni@gmail.com

2015 창작지원 / Producing

## 사물이야기

Tale of Samulnori

<사물이야기>는 새로운 형태의 현대서커스음악극으로 팽과 리, 북, 장구, 징 네 악기의 상징성, 동서남북 사방신과 오방색을 모티브로 한 신화 이야기이다.

The ‘Tale of Samulnori’ takes the form of a modern circus music performance that tells the tale of a myth based on four traditional Korean musical instruments: a Kkwaenggwari, a Jing, a Jangu and a Buk, guardians of the directions and five cardinal colors.



‘아시아나우’는 2005년 창단된 단체로, 한국과 아시아의 현대 연극을 해외진출, 국제공동제작 그리고 국제 창작 레지던시와 워크숍을 통한 창작 개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단체이다.

Founded in 2005, ‘Asia Now’ has worked hard to introduce Korean and Asian plays to global audiences and present creative productions through cooperation with overseas artists, international creative residencies and workshops.

아시아나우&렉스온더월 Asia Now & Legs on the wall  
+82-(0)10-6474-6582 producergroup.79@gmail.com

2014 창작지원 / Producing

## 꽃을 피우는 무대 <화산대>

Blossomy Scene <HWASANDAE>

꽃을 피우는 무대 <화산대>는 사라진 우리 공연문화의 중심이었던 화회와 화산대를 예술불꽃화랑만의 상상력을 통하여 그려낸 작품이다.

The Blossomy Scene <Hwasandae> uses pyrotechnics, the most preferred theatrical effect, to showcase imaginary, mind-blowing shows.



‘예술불꽃 화(花,火)랑’은 불과 불꽃이 가지는 무수한 상징성을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다양하게 창작하고자 새로운 형식의 불꽃공연을 통해 불꽃이 하나의 공연예술장르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HWARANG Art pyrotechnics’ tried to create various works that introduces countless symbolism of fire and flame. They are striving to make new forms of flame performance as their purpose is making people see the true value of flame as a performance art genre

예술불꽃 화(花,火)랑 HWARANG Art Pyrotechnics  
+82-(0)10-5536-9315 pyrohwarang@gmail.com

2014 창작지원 / Producing

## 단디우화

Dandi's Fable

<단디우화>는 중력을 거스리며 자유롭게 벽을 오르내리는 정체불명 유충들의 좌충우돌 이야기이다.

The story of hilarious, gravity-defying caterpillars climbing up a wall



'창작중심 단디'는 인간의 다른 내면을 되비추고 반영하는 자유의지와 창의적인 예술성을 지향한다. 인간의 신체와 줄이라는 감각적인 소재를 통해 관객에게 새로운 감성과 의미를 전달하는 예술적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단체이다.

'Creative Dandi' aims for free will and creative artistry that reflects other inner parts of human beings. It is an organization that constantly strives for artistic communication that delivers new sensibilities and meanings to the audience through the sensuous materials such as human body and string.

창작중심 단디 Creative Dandi  
+82-(0)10-7158-7692 cre\_dandi@naver.com

2014 창작지원 / Producing

## 담벼락을 짚고 쓰러지다!

The Wall

(예)술에 취한 사람이 담벼락에 대고 토해내는 환상의 페인팅 퍼포먼스! 거대 담벼락, 몸, 페인팅, 물 그리고 빛과 제3세계 악기소리들이, 우리를 원초적 내면의 세계로 이끌어간다.

A drunken artist leads you to embark on an amazing journey to an imaginary painting show! A gigantic wall, a body, a painting, water, and third-world instruments are all inviting you to an instinctive, inner world.



'비주얼씨어터 꽃'은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이 통합된 시각연극 Visual Theater를 추구하는 공연예술단체이다. 2000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The School of Visual Theater'에 재학 중이던 이철성에 의해 창단되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CCOT' is a performing arts troupe that pursues a form of visual theater that integrates visual arts and performing arts. Founded in 2000 by Cheol-seong Lee, who studied at the School of Visual Theater in Jerusalem, Israel, 'CCOT' is an internationally active group.

비주얼씨어터 꽃 CCOT  
+82-(0)10-2396-1020 namunun@hanmail.net

2014 창작지원 / Producing

## 벌레 : 멈춘 시간, 흐르다

Insect: Time Stop, To pass

일 벌레처럼 변해 버린 현대인의 또 다른 모습을 신체의 움직임과 오브제로 표현한다. 차갑게 사라져가는 인간성은 생명의 근원인 물을 통해 원초적인 동물적 본능의 태동으로 다시 태어난다.

'People in Backpacks' uses the movement of the body and objects to follow the life of modern people transformed into an insect. The brutal loss of humanity can be reborn by water, a source of life, and animal instinct.



'배낭속사람들'은 인류와 환경에 미치는 사건들을 바탕으로 주 재료로 한다. 최소의 텍스트로 신체, 움직임, 도구(오브제), 마임, 이미지를 활용하며 총체적이고 은유적이게 표현하여 극으로 만들어간다.

'People in Backpacks' uses social issues and events that affect people's lives and the environment as the content of its performances. Its preferred performing tools include body movement, objects, mime and images, to tell stories in a metaphorical way.

배낭속사람들 People in Backpacks  
+82-(0)10-6694-0448 21hunt@naver.com

2014 창작지원 / Producing

## 시간, 기억의 축적

Time, an intensive memory

공간에 설치된 8미터 높이의 대형 모래시계,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이야기는 사운드로 축적되어 모래시계 안 혼재된 시간과 퍼포머들을 움직인다. 사운드, 설치, 자동화시스템, 공중퍼포먼스가 결합된 융복합 공연예술이다.

These stories of mix-ups in history are delivered by performers against a gigantic, 8-meter sand glass. 'Time, an Intensive Memory' artfully blends music, installation, automatic systems and aerial performances.



'프로젝트 날다'는 공중에서의 이미지/움직임을 기본으로 버티컬 퍼포먼스, 크레인을 이용한 대형 공중 퍼포먼스 등 융복합적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Project NALDA' presents extraordinary shows that offer unique experiences in vertical performance, crane based.

프로젝트 날다 project Nalda  
+82-(0)10-3175-2444 pro\_nalda@naver.com

2014 창작지원 / Producing

## 아주 작은 꿈

A Little Dream

한 여자의 아주 작은 꿈 속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세상의 이야기. 화학 전쟁 이후의 오염된 도시를 모티브로 하여, 정상적인 인간이 도리어 낯설게 느껴지는 불안한 미래를 기묘한 의상으로 형상화한 미디어 퍼포먼스 공연이다.

A different world inside a woman's dream. 'A Little Dream' is a poignant, joyful and humorous media performance about a woman's experiences in a world where familiar people become unfamiliar.



'프로젝트 잠상'은 공간과 사물에 잠재되어 있는 형상을 이끌어내는 미디어-설치 퍼포먼스 그룹이다. 눈앞에 보이는 세계 이전에 존재했던 것들, 지금은 사라진 것들을 뒤쫓는다.

'Project Jamsang' is a media-installation performance group bringing subsurface images of spaces and objects up to the surface. It is dedicated to finding faded values in things that no longer exist.

프로젝트 잠상 Project Jamsang

+82-(0)10-3868-8451 projectjamsang@gmail.com

2014 창작지원 / Producing

## 용도변경 2045

Change of purpose 2045

<용도변경 2045>는 거리예술의 무대와 창작의 메카로 용도 변경 중인 구의취수장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조명하는 장소 특정형 작품으로, 텍스트 설치작, 대형벽화, 미디어퍼포먼스로 구성된다.

<Change of purpose 2045> is a site specific artwork developed in the former Gueui pumping station of Seoul, recently transformed into the main center for the street performing arts. It's made up of installation, big scale wall drawing, multimedia performance.



'노노앤소소'는 공간, 예술, 사람의 역학관계,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예술의 역할, 개입의 방식과 그 결과로 공공성을 담보해 나가는 과정에 주목하며 예술의 대안적 모습을 탐색한다. 전시 공연 거리예술 외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실행 중이다.

Recognizing the dynamics between space, the arts and people, and the role and intervention of art in public places, with the resultant publicness 'Nono & Soso' explores alternative art to introduce, not only street performances, but other types of projects as well.

노노앤소소 Nono & Soso

+82-(0)10-3915-6048 nonososo@daum.net

# 99

2014-2020 CREATIVE PROJECTS

# APPENDIX

# 06

부록

공간안내  
주요사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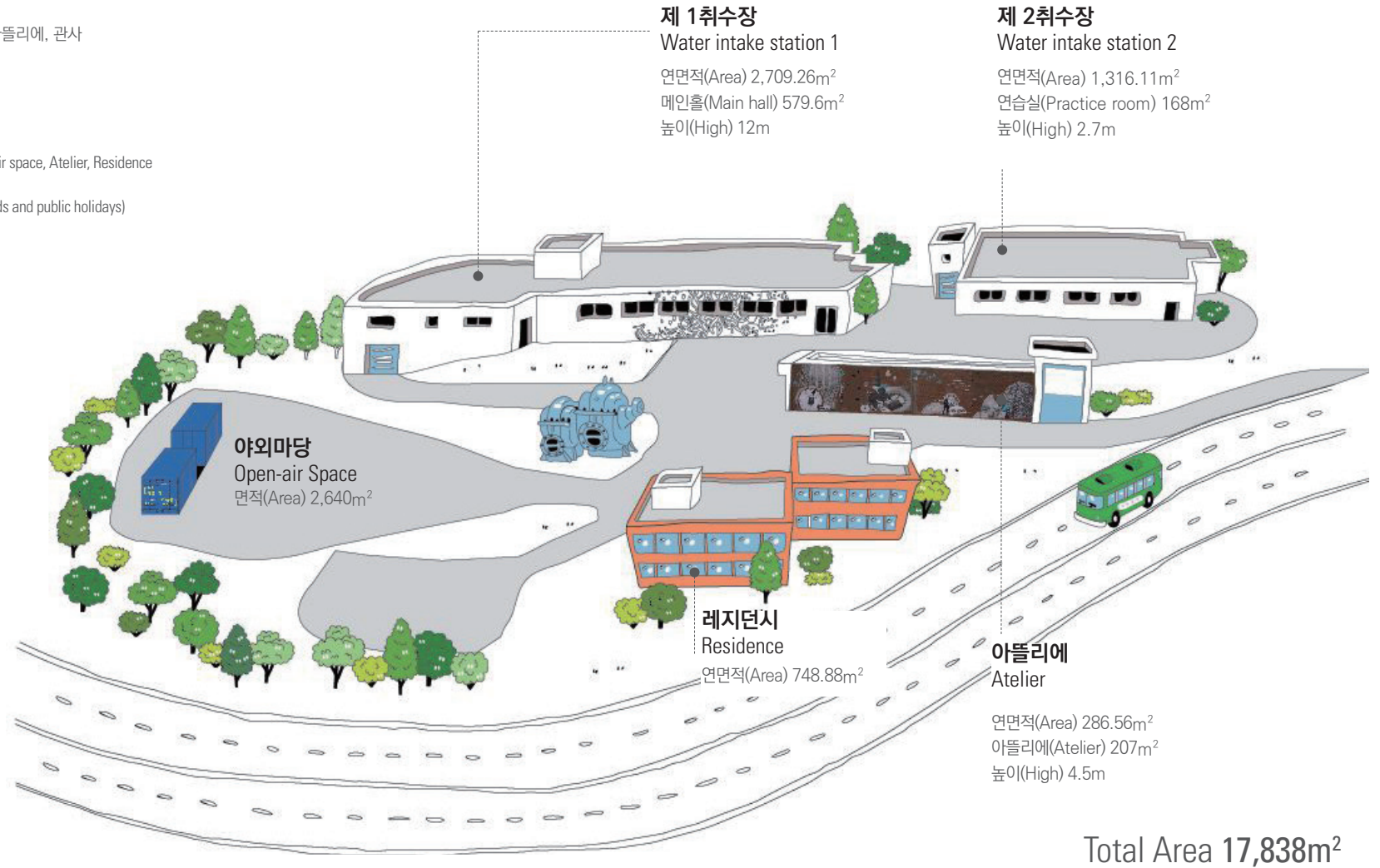
Venues  
Programs

# 국내 유일의 거리예술·서커스 창작 베이스 캠프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710  
 개관일 2015년 4월 24일  
 시설현황 제 1취수장, 제 2취수장, 야외마당, 염소투입실 아틀리에, 관사  
 문의처 02-3437-0099  
 운영사무실 월~금요일 9:00~18:00(주말 및 공휴일 휴관)

Location 710 Ahasan-ro, Gwangjin-gu, Seoul  
 Opening date April 24, 2015  
 Facilities Water intake station 1, Water intake station 2, Open-air space, Atelier, Residence  
 For more information call +82-2-3437-0099  
 Opening hours Office Mon.-Fri. 9:00~18:00(Closed on weekends and public holidays)



**제 1취수장 메인홀**  
Water Intake Station 1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뚫려있는 박스형 건물로 대형작품 연습이 가능한 메인홀과 세트 및 차량반입구가 있습니다. 거리예술 및 서커스에 관한 국내외 주요 자료(서적, 리플렛, DVD등)를 열람할 수 있는 자료실 및 멀티미디어실이 있습니다.

The box-shaped building, open all the way up from the B1 level to a 2-story height, houses the main hall available for practice for major performance shows as well as the delivery hatch for sets and equipment. It also has a reference room and multimedia room where people can read or watch numerous reference materials (books, leaflets, DVDs, etc.) on street arts and circus.



**제 2취수장 연습실**  
Water Intake Station 2

예술가들의 실내 연습 및 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습실이 있습니다. This is a place for rental for the purposes of indoor practice, education, etc.



**야외마당**  
Open-air Space

야외 공연 연습을 위한 공간입니다. The outdoor yard is intended to support practice for outdoor performances.



**아틀리에**  
Atelier  
(Chlorination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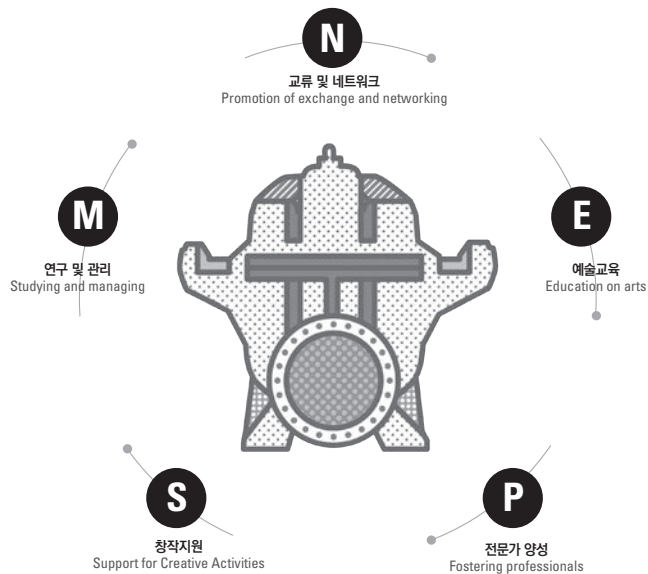
공연에 필요한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는 목/철공 제작소입니다. A space for wood and ironworks for performing.



**레지던시**  
Residence

국내외 예술가 호스텔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총 8개의 방과 카페테리아, 다목적룸, 워크숍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tist hostel and community space, consisting of 8 rooms, cafeteria, multi-purpose room and workshop room.





**창작지원**

작품이 연중 지속적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발표 공간 (국내외 축제 및 도심의 공공 공간)에서 공연 가능한 공공예술로서의 거리 예술 작품 국내 컨템포러리 서커스 장르 육성 및 창작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서커스 또는 서커스와 연계한 공연예술분야의 작품 개발 및 창작 지원

**전문가 양성**

서커스 저변확대 및 서커스 예술가 개발·교육을 위한 전문가 양성과정과 거리예술 예술가 대상 재교육 및 신진 예술가 양성과정 운영

**예술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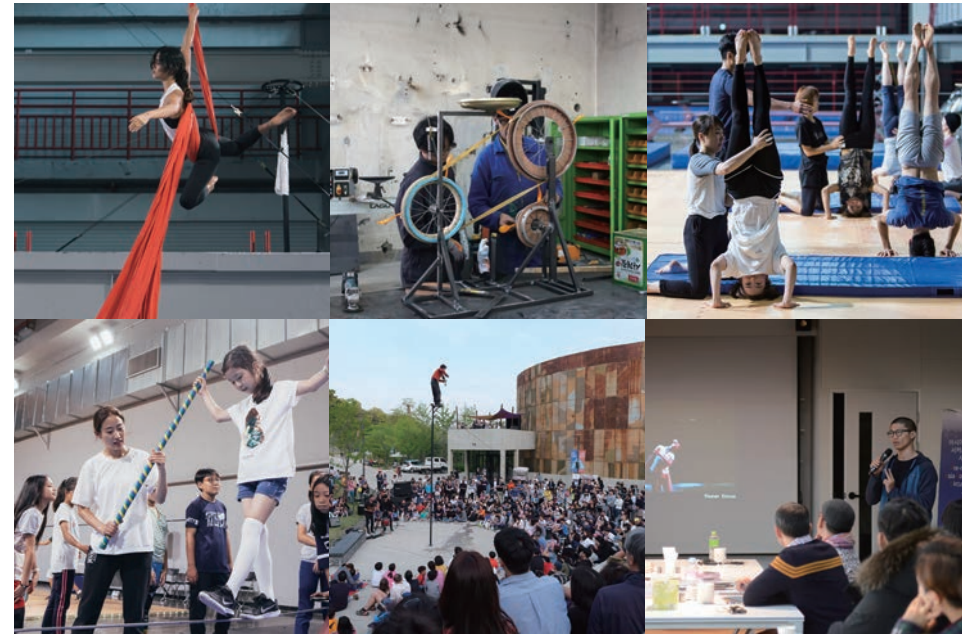
'생활 속의 서커스'를 위한 어린이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 <서커스예술놀이터> 운영 일반인 대상 거리예술 아카데미(이론, 실무) 과정 운영

**교류 및 네트워크**

거리예술과 서커스 분야의 창작 및 배급의 활성화, 전문가 양성과정의 다변화, 실용적인 정보의 공유를 위한 국내외 교류사업 운영

**연구 및 관리**

거리예술 및 서커스 관련 이론에 대한 연구와 아카이브 구축 거리예술 관련 연구 및 비평 작업



**SUPPORT FOR CREATIVE PROJECTS**

The center offers an environment where artworks can be created throughout the year, and finds and supports the production of street arts that can be performed as public art at numerous performance spaces(e.g., festivals in and out of Korea and public venues downtown).

**FOSTERING PROFESSIONALS**

To expand the basis of the circus and develop and educate circus artists, the center offers courses on fostering professionals, re-education of street artists and finding and developing new artists.

**EDUCATION ON ARTS**

The center's "Circus Art Playground" is an arts education program for children to realize "circus in everyday life." Academic courses(theory and practice) on street arts are also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PROMOTION OF EXCHANGE AND NETWORKING**

The center promotes the creation and distribution of street arts and circus, offers diverse courses on raising professionals and operates exchange projects in and out of Korea to share practical information.

**STUDYING AND MANAGING**

The center studies the theories of street arts and circus and builds related archives. Research and critiques related to street arts.

# STREET ARTS & CIRCUS 2021

## 2021 거리예술·서커스 창작지원 사업

**기획운영**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발행처** 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이창기  
**발행일** 2021.12  
**디자인** (주)플렉셈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서울문화재단에 있으며, 출판물 내 이미지 및 관련자료를 사용할 경우 서울문화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문화재단, 2021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517 Cheonggyecheonno, Dongdaemun-gu, Seoul  
tel. +82-2-3290-7000  
www.sfac.or.kr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SEOUL STREET ARTS CREATION CENTER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710  
710 Ahasan-ro, Gwangjin-gu, Seoul, Korea  
TEL. +82-2-3437-0099  
facebook.com/SeoulStreetArtsCreationCenter